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CONTENTS

협회사업 상반기 개최실적

- 제34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 2015. 2. 27 ▣ 1
-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 2015. 5. 13~5. 14 ▣ 2
-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2015. 3. 19 ▣ 7
- 신아시아산학관협력 포럼 ▣ 2015. 5. 28 ▣ 10
-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 ▣ 2015. 5. 30 ▣ 11

협회사업 하반기 개최안내

-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 2015. 6. 30~7. 2 ▣ 12
-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5. 7. 27~7. 31 ▣ 13
- 제1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5. 8. 27~8. 28 ▣ 14
-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2015. 11. 3~11. 5 ▣ 15
- 하반기 주요 한일협력사업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 심포지엄(안) 17
 - 한일축제한마당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하반기 사업안내

특집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발표자료]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20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22
-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 메시지 25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축사 26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기조연설 29
- 강상중 도쿄대학 명예교수 특별강연 34

기획기사

- 엔저의 지속과 일본의 대응 39
-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과 전망 43
- 한일 경제관계 50년의 궤적 46

일본경제동향

신규 회원사 소개

한일 통계

-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회원가입 안내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32호

발행인 | 김 윤
 편집위원장 | 이종운
 편집위원 | 조덕묘·김정호·홍소영
 간사 | 서광현·이유경
 발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18-4
 한일재단빌딩 4F
 TEL/ 02-3014-9888
 FAX/ 02-3014-9899

인쇄인 | 강봉선
 인쇄 | 웃고문화사
 강원도 원주시 배말길 103-2
 TEL/ 033-748-6577
 FAX/ 033-748-5477

한일경제협회 제34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 윤(金 鈞)/(주)삼양홀딩스]의 제34회 정기총회가 2월27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롯데호텔 36층 아스토 스위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김 윤 (주)삼양홀딩스 회장 및 이윤우 삼성전자(주) 고문, 우석형 (주)신도리코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주) 사장, 이휘령 (주)세아제강 사장, 하영봉 (주)GS이앤알 대표이사, 장세주 동국제강(주) 회장, 최영주 (주)팬코 회장, 이정재 (주)삼진LND 회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회장, 최재호 삼남석유화학(주) 사장, 이상준 (주)화인 대표이사, 이승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부(주) 대표,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회장단회의 부의안건으로 2014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

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과 제34회 정기총회 개최(안)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주) 사장과 송치호 (주)LG전자 대표이사부사장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새로이 선임되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김승연 부회장(한화그룹 회장), 김희용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인구 부회장(동원그룹 부회장), 장세주 부회장(동국제강 회장), 이승호 감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재선임 되었다.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임의 건, 2014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협회는 한일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를 오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고 한일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수교 50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의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성황리에 폐막

— 한일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1969년 설치 이후 매년 한번씩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본 회의는 한일 간 여러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47년간 회의가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개최되어 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이다.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2015. 5. 13 ~ 14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192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15명 합계 307명의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였다.

한일 간 정치적 관계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개최된 금번 회의는 미래 50년을 향해 한일 양국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新한일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를 구축하고, 이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고도 균형 잡힌 강력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실현하여 명실 공히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① 한국의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협력
- ②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광역FTA 체결에 대한 지지
- ③ 제3국 공동진출 확대와 미래 성장 분야의 협력
- ④ 한일 간 금융무분 정책공조와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확대
- ⑤ 청소년 교류 및 한일 차세대 교류 확대
- ⑥ 평창·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협력
- ⑦ 민간 차원의 경제·문화·인재교류 확대에 대해 적극 협력

한편, 일본측 단장단(단장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일행은 한국측 단장(김윤 회장)의 안내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예방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민간 경제계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예방 전경



박근혜 대통령 예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방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예방



개회식 전경





한국측 단장 김 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이종윤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회진행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축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 대독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축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내빈인사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연합회 회장 내빈인사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기조연설



강상중 동경대학명예교수 특별강연



조현준 (주)효성 사장 발표



공동성명 심의회



리셉션 (한일 양국 어린이합창단)



리셉션 (양국 단장)



양국 단장 공동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전경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2015년 5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김 윤(金 鈞) 단장 등 192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15명이 참가하였다.

【과거 50년간의 한일협력】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50년에 이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 아시아 경제위기, 리먼 쇼크, 동일본 대지진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 번도 중단하는 일없이 경제제휴, 문화, 인재 교류 등을 통한 양국의 우호 확대를 향한 논의를 일관되게 계속해 왔으며 이번에 4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년 간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각계각층에서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한해였다.

2014년 12월에는 2007년 이래 7년 만에 서울에서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간의 재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과거 50년간 축적한 협력의 바탕위에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다시금 쌓아올려서 한일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등 경제면에 있어서 의견교환과 더불어, 경제계로서도 양국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5년 3월에는 서울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어 3국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과 경제면에서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경제계로서도 이러한 협조체제의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협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같은 달, 양국 경제협회 회장도 멤버로서 참가한 한일현인 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새로운 50년을 향해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을 양국 정상께 제안하기로 합의되었다. 앞으로도 양국 경제인은 민간의 선두에 서서, 한일관계의 가일층의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50년을 향한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양국 경제인은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를 구축하고, 이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고도 균형잡힌 강력한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실현하여 명실공히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가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인식의 현실적 구현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경제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협력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측 단장단의 대통령 예방시 박대통령께서 언급한 한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기대표명에 대해 양국 경제인은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실현이 한일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광역 FTA 지지

일본에 이어 한국의 TPP 참가 및 한일중 FTA 체결은 한일양국에 의한 「하나의 경제권」형성은 물론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뜻 깊은 일로써, 양국 경제계 차원에서 적극 서포트해 나가기로 했다.

3. 제3국 공동진출 확대와 미래 성장 분야의 협력

양국 경제인은 제3국에서 Win·Win할 수 있는 공동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원개발·인프라수출분야와, 미래의 성장 분야로써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 고령화 문제에 직결되는 의료·요양보호 및 그 주변기기 관련 비즈니스, 그리고 요양보호 인재의 확보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4. 금융부문의 정책공조와 통신분야의 협력 확대

양국 경제인은 한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그리고 제3국으로의 협력적 공동 진출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환율·투자 등 일련의 경제정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부에 그 적절한 조정을 제안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양국의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제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교통카드 T-money와 일본 Suica 등 비접촉형 IC카드와 은행카드의 제휴 등 양국 정보통신(ICT) 분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구체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5. 청소년 교류와 한일 차세대 교류의 내실화 및 가일층 확대

한일 고교생교류 캠프, 대학생 교류 등 다음 50년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류 내실화·확대는 미래 한일관계의 주춧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한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양국 대학생 기업인턴십 연수 실시, 양국 중소기업 차세대 경영자 교류회 개최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6.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한 상호 협력

양국 경제인은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양대 올림픽·패럴림픽이 양국의 발전과 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더욱 확고한 아시아의 세기로 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의 문화 교류, 자원봉사 교류, 도시 간 교류 등 올림픽을 청소년 교류와 관광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를 계기로 한일 공동표기 표준화, 기상, 자연재해 정보공유 등의 면에서도 상호협력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7. 양국 정부에 대한 기대

양국 경제인은 앞으로도 「한일 축제한마당」과 같은 풀뿌리 차원의 문화교류도 추진해 갈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미래 50년을 짚어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미래 지향적으로 꿈이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한편으로는 더욱 더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에도 상호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민간 레벨의 경제·문화·인재교류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양국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기로 하고, 또한 양국 정부의 깊은 이해와 배전의 지원을 기대한다.

8. 차기 회의 개최

다음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6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5년 5월 14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 幹夫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무역, 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해 정보 공유 및 문제점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일경제인회의에 논의 의제를 상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서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금번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3월 18일~1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안종원 비상근 부회장(동아원그룹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44명이, 일본측에서는 아소시멘트(주) 아소 유타카 사장 등 33명이 참가하였다.

양국 위원들은 금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은 한국과 일본이 동반성장하고 하나의 시장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1세션에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 환율, FTA에 있어서 한일 정책 공조”에 대해서, 2세션에서는 “한일 하나의 시장화를 위한 협력방안” 그리고 3세션에서는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일협력”이라는 테마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작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및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제안이 있었던 ‘한일경제협력기수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노성태 前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아시아지역의 금융협

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양국 금융정책 협력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아시아통화기금의 탄생과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의 부활 그리고 양국 재무장관 회담의 재개를 통한 금융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한 양국의 노력 강화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또한 윤인호 동경이과대학 교수는 “한일 양국의 정보통신(ICT) 전략의 제휴 가능성과 제휴방안과 ICT·교통통신 요금의 제휴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교통카드 T-money와 일본의 스이카(SUICA)의 제휴 등 양국 ICT 전략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일협력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도쿄올림픽은 한일 양국의 국운이 걸린 큰 이벤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절호의 기회가 될 뿐 만 아니라 국가 부흥의 기회는 물론 21세기를 더욱 확고한 아시아의 세기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한일협력방안으로써, 한일을 패키지로 묶는 해외관광객 공동유치 전략에 대한 상호협력과 한자통일·픽토그램(그림문자)·고령친화용품 표준화·교통카드 등 한중일 공동표기 표준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 밖에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써, 한일 공동의 제3국 협업과 관련하여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는 협력이 활발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의 사례는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성장하는 아시아시장에서의 한일 양국 제조업간 협업을 기대한다는 코멘트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분야 등에서의 한일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또한 일본의 대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투자 시, 주의사항 및 관세조항 등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중요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일본측 참가 위원의 코멘트가 있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경제인이 정치 문제에 앞서 양국의 경제·문화·인재교류의 협력을 위하여,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만들고, 액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같이한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평가 받았으며, 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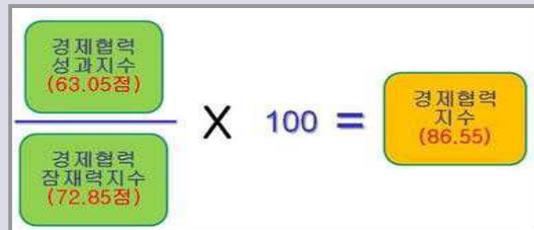
2015년 『한일경제협력지수』 86점

한일 경제 협력 수준 객관적·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100점 기준 86점’
 현재 한일 경제 협력 성과 파악 및 추후 협력 방향 제시

경희사이버대학교 오태현 일본학과 교수가 개발한 ‘한일경제협력지수’를 활용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성과가 지난 4월 3일(금)일본 저명 일간 경제지 ‘일간공업신문’에 게재돼 화제다. ‘일간공업신문’은 지난 3월 19일(목)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의 오 교수의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연구의 취지와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해 크게 주목했다.

오태현 교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의 의뢰로 금번 연구를 시작했다. 현재 한일 경제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를 개발했다.

‘한일경제협력지수’는 한일경제협력의 정도와 수준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한일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양국의 경제 협력 ‘성과 지수’와 ‘잠재력 지수’로 구성돼 있다.



한일경제협력지수 도출 공식

‘성과 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 한일 양국에서 추진된 경제협력의 성과 및 경제협력의 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며, ▲무역(상품) ▲투자(자본) ▲관광객·유학생의 왕래 등 인력 ▲지식(기술무역고) 등을 포괄해 산출했다. 오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경제 ‘성과 지수’는 최고 지수인 100점 기준 63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과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 및 기대치를 나타내는 ‘잠재력 지수’는 ▲산업구조의 보완성 ▲시장 접근성 ▲인프라스트럭처(교통, 물류 등)의 효율성 ▲생활 수준(소득, 주거, 교육, 건강 등)의 유사성을 수치화해 결과를 도출한다. 잠재력 지수 결과는 78점이었다.

‘경제협력지수’는 성과 지수를 잠재력 지수로 나눈 결과로, 잠재력과 성과가 같은 점수일 시 협력 지수를 100으로 설정한다. 계산 결과(사진 2 참조)에 따라 현재 한일 간 경제 협력 지수는 86으로, 성과가 잠재력의 8할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간공업신문’의 인터뷰를 통해 오태현 교수는 “작금의 일한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차갑고 경제적으로 뜨거운 ‘정냉경열’ 상태로, 활발한 경제 교류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협력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한일 교류 개선에 대한 대응은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일경제협력’를 토대로 양국의 경제 관계를 수치화함으로써 추후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아시아산학관협력 포럼

2015신아시아산학관협력포럼은 금년 가을에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3국의 정부, 대학, 산업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인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한국측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신아시아산학관협력포럼은 지난 5월 28일 (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사)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와 (사)한국산학연합회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산업 내 분업’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약 70명이 참가하였다.

금번 포럼은 11월초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병행 프로그램

인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의 사전적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되었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3국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살려 상호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내 분업구조(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분업, 의료, 요양, 기능성 식품 동향과 한중일 분업, 신재생에너지 동향과 한중일 분업, 산업단지, 물류동향과 한중일 분업, 인재양성 및 한중일 지역교류) 형성 방안을 제시하는 포럼이 되었다.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개최 전, 각 발표자별 3국 협력방안·모델을 보완하여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 개최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페럼 타워에서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짚어지고 나아갈 21세기 주역인 양국 미래세대 간 토론회를 통해 한일협력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대학생 대토론회는 SBS, 한국경제신문사, 동국제강, SJC가 후원하였으며, 한일 양국 대학생 등 88명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의 이상협 학생(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1년)과 가네코 타카오 학생(와세다대 상학부 1년)은 한·일 상호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

력과 자세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상협 학생은 “과거사에 얽매인 현재의 한일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만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면서 경제, 안보에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위안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카네코 타카오 학생은 “정치, 역사, 인적 교류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 상황에 직면 했다”며 “한일관계가 냉각된다면 그전에 있던 인적교류가 모두 소용이 없게 된다”며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역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이어 “과거사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오대학의 오카베 나기사 학생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 한일관계에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카베 학생은 “많은 일본인들이 K-POP과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국가가 앞장서 시민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면 한일관계 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양국의 얽힌 역사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추오대학의 오타 미즈아키 학생(법학부2)은 “각국의 관세가 철폐되고 자유경쟁주의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경제공동체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한·중·일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경제를 견인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세안을 예로 들어 “아세안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나라들로 이뤄져있지만 회원국간 법 없이 상호 동의만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며 “이해관계가 다를수록 존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한·중·일 역시 서로 다른 역사와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융합해 나간다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양대의 김지수 학생(경영학 1년)은 수출 의존국인 한국이 최근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 둔화와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4월14일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4%에서 3.7%로 하향 조정 한 뒤 5월14일 다시 3.1%로 내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등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정체되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언론의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대 최소정 학생(일어일문학 2년)은 “양국 언론이 판매부수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반일·반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들이 객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쪽 방향에 치우치지 않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후루카와 타쿠 학생은 2014년 8월3일자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 산케이신문이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

시키고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잃고 증권가 ‘찌라시’를 사실인 듯 보도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또 “기자간 선입관 없는 상호이해가 구축되어야한다”며 “양국간 활발한 기자 교류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경희대 신승엽 학생은 “매스컴의 편파적인 보도는 매스컴 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행동을 자제하고 내셔널리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사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일경제협회의 이종윤 부회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들이 한일관계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아직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모습이 기특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앞으로 50년 안에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가야한다”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양국의 산업이 수평구조를 이뤄 상호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도 “젊은이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다”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3, 14일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2002 월드컵이나 한일축제한마당같이 국적과 역사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한일 협력의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며, 양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오늘날의 한일 관계를 분석해 보고 한일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한일고교생교류 캠프와 한일학생미래회의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를 초월한 소중하고도 진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일본 최대 수송용기계 공업지대인 아이치현 나고야시(愛知縣 名古屋市)에 위치한 일본 제조 현장 견학 및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일 비즈니스 교류 확대 및 경

제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가 2015년 6월 30일(화)부터 7월 2일(목)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되었다. 

▣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5년 6월 30일(화) ~ 7월 2일(목)
장 소	ANA CROWNE PLAZA Hotel Grand Court NAGOYA
규 모	약 150명(한국측 약 60명, 일본측 약 90명)
테 마	새로운 50년을 향한 모노즈쿠리(제조업) 협력과 공동번영
주 최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KOTRA(나고야무역관)
	일본측 : 아이치(愛知) · 한국 경제교류회의 실행위원회
주요내용	· 공동번영, 모노즈쿠리(제조업), 미래, 제3국에서의 협력 등을 키워드로 강연 · 발표 · 아이치현 산업 시찰(모노즈쿠리 우수기업) 2개사 ① 도요타L&F(도요타자동차기 사내 기업) 다카하마 공장 ② ADVICS(아이신 세이키 자회사) : 브레이크 부품 제조 · 1:1 비즈니스 상담회

글로벌청년인재육성사업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안내

우리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양국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해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해오고 있다. 금번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외무성, 국토교통성이 후원하며,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위탁사업으로 2015년 7월27일(월)부터 7월31일(금)까지 4박5일간 한국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써, 이번 캠프는 협회 회원사인 삼양그룹, 롯데그룹, 삼성전자의 협력을 얻어, 한일 양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시설 견학과 업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한일양국에서 참가한 80명 (한국측 40명, 일본측 40명)의 고등학생들은 혼성 8개의 팀을 구성하여, 4박 5일 동안 합숙하면서 한국의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관광, 서비스, 유통·판매, IT

등의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기획하여, 사업금 피칭을 위한 사업 홍보 부스를 구성하는 체험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학생 골든벨, 양국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각 팀에는 한일 양국어가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멘토가 1명씩 배치될 예정이며, 캠프 진행시 양국 학생간의 의사소통 역할 수행 및 사업아이템 구상·사업발표회 준비과정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캠프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 촉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강화에 공헌하고, 창업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미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10회 한일학생미래회의[KJSFF] 개최, 한국 부산

2015년 8월 6일(목) ~ 8월 10일(월)

한일학생미래회의는 한일고교생 교류캠프 수료자들로 구성되어, 2007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이한다. 한일고교생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가 바라보는 한일기업의 신산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일양국의 여러 방면을 살펴보고, 생각하여 나온 의견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여 한일 미래를 우호적으로 성장시키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조할 예정이다.

제1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안내

- 한국 울산광역시 -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 「대구·울산·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北陸3縣 : 토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2015년 8월 27일(목)부터 8월 28일(금)까지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이 교차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본 회

의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호쿠리쿠) 공동번영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의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과 협력방안, 기업의 해외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며, ‘관광산업’, ‘의료융복합’ 분야의 전문분과회 및 양국 기관·기업 간 개별미팅도 구성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 제1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5년 8월 27일(목) ~ 8월 28일(금)
장 소	울산광역시 롯데호텔
테 마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호쿠리쿠) 공동번영의 시대로
주최·주관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사)한일경제협회
	일본측 :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호쿠리쿠경제연합회 호쿠리쿠AJEC
주요내용	· 한일 양국의 지방경제활성화 방안과 협력방안, 기업의 해외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논의 · ‘관광산업’, ‘의료융복합’ 분야의 전문분과회 및 양국 기관·기업간 개별미팅

※ 참가문의 : 홍소영 과장 02-3014-9881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안내

- 한국 부산광역시 -

2015년 11월3일(화)부터 11월5일(목)까지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와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공동으로 한국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의 지자체·경제단체·기업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쌍방의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의 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양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2000년에 만든 정부간 중요한 3국 지역협력체제로 3국 환황해 지역내 무역, 투자,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강화와 개방형 환황해 경제권 형성, 공동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이다. 두 회의가 같이 개최되는 만큼 한국, 중국과 일본 큐슈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예정이다. 

□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5년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장 소	한국 부산광역시 롯데호텔
테 마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큐슈) 공동번영의 시대로
주 최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자체, 관련 단체·기관
	일본측 : 큐슈경제산업국,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사)큐슈경제연합회,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지자체, 관련 단체·기관

□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5년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장 소	한국 부산광역시 롯데호텔
테 마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 ~의료·요양, 헬스케어, 가공식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인재육성~
주 최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일본측 :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중국측 : 상무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 주요일정(안)

날 짜	주요 활동 사항
11/3(화)	일본측·중국측 대표단 입국(김해공항)
	산업시찰 I,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11/4(수)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
	3국 정부간 국장회의
	한·일(큐슈) 비즈니스상담회
	한중일 3국 연구기관 제3차 워크숍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본회의, 리셉션
11/5(목)	산업시찰 II
	일본측·중국측 대표단 출국(김해공항)

※ 참가문의 : 홍소영 과장 02-3014-9881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 심포지엄(안)

1. 일시: 2015년 10월 26일(월) 14:00~17:00
2. 장소: 경제단체연합회 회관 2층 국제회의실
3. 주최: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단체연합회,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4. 후원: 대한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간사이경제연합회
5. 안내: 주최·후원 단체, 재경한국대사관 등 (※매스컴 전체 공개)
6. 언어: 한일동시통역
7. 취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과거 50년의 한일협력의 성과와 경제적 성공을 돌이켜보고, 향후 50년을 바라본 한일양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와 그 해결책, 협력방안 등에 애해서 논의 함
8. 프로그램(안):
 - 가. 개회 인사:
 - (1) 한국측: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 (2) 일본측: 경제단체연합회 사카기바라 사다유키 (榊原定征) 회장
 - 나. 내빈인사:
 - (1) 한국측: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유흥수 대사
 - (2) 일본측: 일본정부 키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외무부장관 등
 - 다. 기조연설: ~과거 50년의 한일협력의 역사를 뒤돌아 보다~
 - (1) 한국측: 관계전문가
 - (2) 일본측: 후카가와(深川) 와세다대학 교수 <휴식>
 - 라. 패널토론 ~향후 50년을 향한 한일양국의 새로운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 (1) 의장: 후카가와(深川) 와세다대학 교수
 - (2) 패널 리스트:
 - 한국측 기업인: 삼성, LG 등
 - 일본측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
 - 한국측 관계전문가
 - 일본측 관계전문가
 - (3) 간담테마:
 - 한일기업의 협력관계의 확대·심화를 향한 과제와 경제계의 역할
 - 한일경제·사회의 공동과제(환경, 에너지, 저출산·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경험의 공유와 협력 방안
 - 협력의 기반이 되는 국민레벨의 상호이해촉진방안(인재육성, 인적교류촉진 등)
 - 마. 폐회인사: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佐々木 幹夫) 회장 

한일축제한마당

- 한국 서울 -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에서 시작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의 한일문화 교류행사이다. 본 행사는 수만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한일 교류행사이다. 한일 문화교류, 시민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 자치단체 교류 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축제를 통해’ 한일 문화의 차이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계기가 되어, 어떠한 악천후에도 항상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등대같이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축제가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미래를 향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한일축제한마당 개요 □

일 시	2015년 9월 19일(토) ~ 9월 20일(일)
장 소	신촌연세로 퍼레이드, 코엑스(COEX) 전시장 B홀
주 최	한일축제한마당2015 in Seoul 실행위원회
일 정	2015년 9월 19일(토) 신촌연세로 퍼레이드
	2015년 9월 20일(일) - 축하공연 - <1부>공식행사 - <2부>공연행사 - <3부>공연행사

※ 참고 : ■ 2015년 한일축제한마당 행사의 세부 일정은 7월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matsuri.kr/korean/index.asp>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하반기 사업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일시 / 장소	사업담당자
제조혁신 인재육성	1. 창조적 제조혁신 인스트럭터 양성 2. 일본기업현장기술 연수 3. 청년인재 일본기업 취업지원	1. 장소 : 일본 동경, 교토/ 한국 지도기업 기간 : 일본과정 3주(이론 및 실습) → 7.17(금)~8.2(일), 국내과정 및 심화과정 1주(기업 파견지 도) → 10.5(월)~10.8(목) 2. 기간 : 3개월(어학연수 1개월, 일본 기업연수 2개월) 3. 인턴십 : 20명(국내 SJC기업 10명, 일본현지기업10명) 취업지원 : 20명	1. 김도훈 팀장 연락처 : 031-505-2442 2. 일본기업현장 기술연수 3. 장진욱 팀장 연락처 : 02-3014-9845
무역, 투자, 산업협력 촉진	1. 한일산업기술페어 2. 차세대경영자 파트너십 구축	1. 장소 : 서울 COEX (삼성동)10 개최일 : 9월 11일(금) 2. 시기 : 2015년 10~11월중에 방일 및 방한 프로그램 실시	이병국 기업매칭2팀장 연락처 : 02-3014-9846 장윤중 기술지원팀장
대일산업통상 협력강화	1. 대일통상연구 2. 제3국 진출, 한일협력모델개발		1. 송성기 센터장 연락처 : 02-3014-9821 2. 전재용 팀장 연락처 : 02-3014-9822
일본 우수퇴직 기술자 유치 · 뿌리기술 전문가 유치	1. 일본 우수퇴직 기술자 유치 2. 뿌리기술 전문가 유치	1. 지원기간 : 1개월 ~ 7개월 2-1. 뿌리기업 관리자 모노즈쿠리 연수 기간 : 3차, 8.27(목)~9.4(금), 4차 : 10.15(목)~23(금) *7월 모집예정 2-2. 뿌리기업 ICT활용 모노즈쿠리 프로세스 혁신 일본연수 장소 : 일본(동경, 나고야) 기간 : 2차, 9.14(월)~18(금) *7월 모집예정 2-3. 뿌리기업 실무자 모노즈쿠리 현장력 SKILL-UP 일본연수 장소 : 일본(구마모토) 기간 : 2차, 11.16(월)~21(토) *7월 모집예정 2-4. 뿌리기술 차세대 인재 일본연수 장소 : 국내(경기도) / 일본(나고야, 교토) 기간 : 국내 : 1일, 일본 : 5일 · 1차 : 8.16(일)~21(금) · 2차 : 12.6(일)~11(금)	1. 장윤중 기술지원팀장 연락처 : 02-3014-9812 2. 김탁 부장 연락처 : 031-505-2443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한국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재)한일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jc.or.kr/>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개회사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김 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윤입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경제 협력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를 위해 멀리서 오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벅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경단련 회장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기초연설을 맡아 주실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님과 특별 강연을 해주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최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의하면 계속해서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성장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 위기의 양대 위기 여파 속에서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경우는 닛케이 평균주가가 2011년도 8,100선에서 2015년도 20,000선에 이를 정도로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경제의 회복은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경제는 그동안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여 생산과 고용을 늘려 내수를 이끌어왔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화강세로 인해 수출이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채용규모도 줄어들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서울재팬클럽 회원기업에서 한국인 청년인턴을 수용하여 인턴십 실습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의 경제 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영향보다 EU, NAFTA와 같은 지역공동체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명확한 경제통합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통합체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 절실히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에 의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 실현과 TPP와 같은 다자간 광역 FTA를 통해 긴밀히 제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양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는 한일 국교 수교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한일 간 정치적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아마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바야흐로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일이 다시 협력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우리 기업인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0년간의 한일 협력을

주춧돌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2015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반성장 공동번영의 시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 기반 위에서 아시아경제통합을 강력히 추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일본의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웃이 싫으면 이사를 가면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이웃이 싫다고 이사를 갈 수는 없습니다. 한일의 이숙명적인 관계를 양국이 윈윈하는 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달 한일 원로급 지도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제2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자는 제언이 있었는데 이는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그 기반을 다지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경제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개회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개회사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佐々木 幹夫)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허창수 전 경련 회장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 측 참석자 여러분 벅쇼 고로 주한일본 특명 정권대사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님 및 일본 측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제 47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본 측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4년 후인 1969년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번으로 4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직면하면서 정치에 좌우되지 않고 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는 모두 관계자 여러분의 열의와 그리고 노고의 성과물이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로부터 오늘까지 이 1년 동안을 되돌아보니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여러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도 추진되어 온 1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일본 게이단련의 사카키바라 회장님도 나중에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작년 12월에는 7년 만에 서울에서 일본 게이단련과 한국 전경련간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께 예방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한중일 3국의 외무장관회의도 개최되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과 한중일 FTA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협조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 한일현인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바라본 포괄적인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양국 정상께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현인회의에는 김윤 회장님과 저도 양국의 경제인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달 4월말에는 상하이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2년 반 만에 한일재무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을 둘러싼 환경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한일 경제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양국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신시대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동반성장, 공동번영의 시대에 대해서입니다.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한일이 함께 윈윈 관계를 구축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할 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서 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또 강력한 성장으로 견인해 나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수준 높은 한중일 FTA 그리고 TPP 등의 다자간 광역FTA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양국의 제3국에서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44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이후 제3국에서의 한일 연계 제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일 양국이 서로 협동해서 협조해서 제3국가에서 자원과 에너지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 수출을 통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3국에서의 종합적인 사회개발에 기여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제3국에서의 공동 노력과 활동은 양국 간의 무역 투자 통계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 세계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재작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일공동 LNG개발현장을 시찰했고 또

작년 5회 미얀마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인프라 수출 등의 관점에서 시찰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할 주제로서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면서 향후 성장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공동의 사회 과제가기도 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의료, 개호, 요양 분야의 제3국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번째는 한일의 청소년 교류입니다. 한일 양국의 앞으로의 50년의 주인공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힘입어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는 한일 고교생교류캠프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아소 체어맨께서 보고하실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체험에 참여한 한일 양국의 고교생들은 약 2000명에 이르고 있고 이 학생들 청년들의 대부분이 대학생 또 사회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일 양국의 우호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일 기업 활동 이해를 촉구 증진하기 위해 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일기업 인턴십 연수, 양국의 중소기업 젊은 경영자 교류 등과 같은 사업에도 추진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도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더 큰 이해와 자금적인 측면의 지원도 포함해서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는 스포츠와 문화를 통한 교류입니다. 저희 한일경제인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2020년의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대회를 양국 국민에 특히 청소년 교류의 장이고 문화교류, 또 자원봉사 교류, 도

시 간 교류의 기회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풀뿌리 교류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축제 한마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의 시민들이 서로 상대방의 음식문화 전통예능 등을 함께 즐기고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로서 도쿄와 서울 양쪽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올해도 9월에 히비야 공원을 행사장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이고 저도 일본 측의 실행위원장으로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

해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관계 구축의 시작에 걸맞은 해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카운트파트너인 한일경제협회와 하나가 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를 또 더욱 크게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회의가 여러분들께 있어서 결실 있는 또 유익한 회의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ㄹ

아베 신조 일본 내각 총리대신 메시지 대독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 소마 히로히사 (相馬 弘尚)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일양국의 경제인을 대표하는 여러분 한일국교 50년을 맞이하는 기념할 만한 해에 양국 경제인회의 개최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교 정상화로부터 불과 4년 후인 1969년 이후 해마다 빠짐없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개최되어온 한일경제인회의의 행보는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각국의 경제 성장과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에는 약 800억 엔이었던 양국 간의 무역 총액은 2014년에는 약9조 엔으로 약 100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간 1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의 인적 왕래도 연간 500만 명을 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주역을 맡아 오신 양국 경제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의 표하는 바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가기 위해 두터운 경제 교류, 인적 교류는 양국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양국의 경제 관계 가일층의 긴밀화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끝으로 한일경제인회의의 앞으로의 더 큰 발전 양국 경제의 성장, 양국 경제인의 더 깊은 교류 촉진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이상입니다.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축사

산업통상부
차관 문 재 도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벅쇼 고로 주한일본국 대사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님,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969년부터 계속 되어온 한일경제인회의가 그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양국 경제인들 간의 협력의 장으로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을 방문하신 일본 측 경제계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힘써 오신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은 긴밀한 상호 경제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14년 860억 달러로 430배 이상 증가하여 양국은 서로 간의 제3위의 교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한투자액은 작년까지 총 380억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16%를 차지하는 등 그 동안 한국의 산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새로운 협력의 50년을 설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금년의 한일 경제인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50년을 위한 출발선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완만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률 둔화, 신흥국의 지정학적 위험 등 잠재적 불안 요소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다원화하는 한편 동북아 공동 경제권 형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국 간 산업 기술협력을 보다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기존 일부 산업에서의 수직적 분업구조 협력을 벗어나 향후에는 글로벌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첨단 IT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수평

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 간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제휴와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에너지 및 서비스 산업 협력 등으로 보다 다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 소비국으로서 전통적 화석연료 시장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미래 자원 고갈과 환경문제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요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의료 헬스케어, 금융, 관광, 통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공동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 분업 구조를 통한 무역입국을 통해 성장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리플레이션 공조에도 불구하고 실물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양국이 경제 변동성의 진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시장 수요 확보를 통한 경기 리스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일FTA, RCEP, TPP 등 경제통합 논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켜 나간다면 규모의 경제도 확보하고 각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일본 속담에 도오쿠노 신센키 요리 치카쿠노 타닌 「遠くの親戚より近くの他人」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사촌으로서 미래를 함께할 중요한 이웃입니다.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경제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정부에서도 양국 간 경제 노력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기조연설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인호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한일 경제협회 김운 회장님,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님, 벅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사사키바라 사다유키 회장님,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하신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한일양국은 올해 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해를 맞고 있습니다. 1965년 이후 양국 관계는 주로 경제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인들의 역할과 기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1969년 설립 이후 이 한일경제인회의는 그 간 양국 협력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요한 해의 제47회를 맡는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되어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양국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일부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준비된 내용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교정상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던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과 미래지향적 공동번영을 선언하면서 활기를 띠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국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다소 어찌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국 교역액은 2011년과 2012년에 1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860억 달러에 그쳤고, 양국 간 투자도 수교 이후 2012년 52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 정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가장 먼저 체결되었어야 할 양국 간 FTA의 진전이 없다는 점이며 TPP와 같은 메가 FTA의 진행과정에서도 양국의 공조가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양국관계의 복원력을 잃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경제인들이 함께 양국 관계를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는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동아시아 경제의 역학구도 내에서 양국이 같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당위성에 비추어 큰 거리가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저는 평소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한일 경제관계의 현실을 보면서 양국에 합당한 새로운 협력의 5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몇 가지 인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국관계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화사학자인 유홍준 씨는 그가 쓴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일본 편에서 삼국시대로부터 한일 두 나라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많은 공통점을 공유해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호혜와 협력의 역사입니다. 1500년이 넘는 교류의 시간 속에서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역사는 호혜와 협력의 관계가 양국 간에 지속될 때에는 두 나라 공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사례로 한국의 삼국시대 백제는 일본과의 활발한 인적 물적 거래를 바탕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며 통일신라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당시 헤이안시대였던 일본 역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신뢰를 주고받기 위한 사절이라는 뜻을 가진 통신사가 17C초부터 열 두 차례나 일본으로 파견되어 단절되었던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이고 문화, 학술 교류는 물론이고 교역량도 늘어나면서 두 나라 상인 모두 이익을 얻는 등 양국의 상업과 경제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반대로 두 나라에 금이 가고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일본 역시 결과적으로 국가 위기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면

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개혁 과제가 본질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이상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양국은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와 이념이 양국의 경제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기업 활동으로 구현될 때에만 양국 경제가 각각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양국 경제 관계 역시 이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양국의 국가 이성과 모습들이 이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끔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시장경제시스템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 위에서 충분한 경쟁과 교류를 통해 경제의 가능성을 국내외적으로 극대화 해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장경제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수요자 내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이고 경제 환경입니다. 생산자의 이해나 산업보호 필요성에 앞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제도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소비자 중심적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정책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시스템 내에서 저절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FTA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여전히 많은 통상 현안이 발생해서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국 모두 이러한 원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제 시스템 하에서 경제가 운영되고 있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과제의 성공 여부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이나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제3의 화살의 핵심은 결국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자는 개혁노력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 개혁 노력의 성공 여부에 양국 간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저의 생각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이의 실현은 한일 양국의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왕국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보다 경제영토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은 일본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경제발전 최대의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일이 단일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관계 정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노력인 FTA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국의 경제인들의 바람직한 인식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원인을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서 찾거나 때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경제적관계의 악화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국 경제인들은 양국의 경제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지난 50년간에 걸친 양국 경제인들의 기여와 공헌을 무력화시킬지도 모를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경제협력관계의 재도약을 통해 비경제적관계의 악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양국 경제인들의 최우선 과제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이미 수십 년간 경제적 비경제 관계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왔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이 비경제적 관계를 개선시키고 비경제적 관계의 개선이 다시 경제적 관계를 확대 심화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다시 작동시켜야 하며 그러한 인식과 노력의 중심에 우리 경제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시작될 50년을 앞두고 양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협력의 방향은 첫째는 사람, 물건, 돈, 문화 등 모든 것들의 자유로운 교류, 둘째, 상호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의 극대화, 셋째, 아시아 경제공동체 기반구축으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수평적 분업 논리를 인지하고 새로운 가치사슬의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일관계는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최종재를 만들어 제3국에 판매하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점차 비교우이 또는 국제적 우이분야를 넓혀가면서 수직적 협력은 약화되고 최종재를 중심으로 경쟁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양

국산업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점차 비슷해진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일관계처럼 산업과 국제경쟁력구조가 비슷해지거나 제3국 시장에서 경쟁분야가 넓어지게 되면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의 유사성, 근접성을 활용하여 수평적 분업 내지 산업 내 분업이 늘어났습니다.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중간재에서도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가치창출의 역량이 향상된 것입니다. 한일 역시 중간재 교육이나 해외 투자를 강화해 온 점은 비슷하지만 서로를 경쟁상대로 인식하여 상호간 보다는 제3국가의 협력을 선호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기업들이 부단히 추진해왔던 가치사슬 확대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간의 수직적 협력을 수평적 협력으로, 산업간 분업을 산업 내 분업 특화로 확대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되고 있으나 양국 경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 FTA의 빠른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한 FTA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나 유독 한일 일한 FTA를 타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국 간 FTA 성사는 단순히 교역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시장경제의 틀을 공고히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근원적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FTA를 통한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 양국 기업이 역내 가치창출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간다면 한일은 물론 한중일 교역확대와 기술교류 심화로 이어지고 궁극적

으로 세계경제의 심장이 동북아에서 뛰도록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정부와 여론과 언론을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FTA이외 TPP, RCEP등 메가FTA와 G20, APEC, ASEAN+3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에 한일 경제계는 정부와 더불어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다자간 광역 FTA로 인한 상당부분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일 모두 이러한 환경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 한국도 이미 충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TPP 가입이 논의될 때 일본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눈을 돌려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국이 협력하면서 아세안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양국 간에는 2006년부터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위한 노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세안시장 인프라 진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의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두고 양국이 치열한 경쟁도하지만 협력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양국 기업들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이미 37건의 제3국 공동 진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협력의 내용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유라시아대륙의 인프라개발을 노리고 마련한 소위 일대일로 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한일 양국은 함께 전략을 짜서 신흥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한일은 미래 산업 신 성장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

을 적절히 융합하는 전략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한국은 모바일 솔루션, 핀테크, 헬스케어 등에서 산업 환경이 우수합니다. 일본은 로봇, 항공우주,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예컨대 R&D에서 협력을 한다는 등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RCD융복합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군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일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구조 개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구조 개혁의 바탕에서 양국은 경제정책의 공조도 큰 틀에서의 공동 노력이 전개될 여지가 매우 많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통화정책 등 여러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상황도 배려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와 새로운 방향으로의 경제협력 확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먼저 중단된 한일간 통화스와프를 보완하고 중앙은행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북아시아의 환율안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상호보완적인 산업협력의 틀로써 제조, 부품소재, 서비스 등 폭넓은 영역에서 비경쟁적인 산업 군을 발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양국은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에게 이끌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에는 이런 다양

한 분야의 교류가 경제협력의 필수적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를 활성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골든위크 기간 중 일본에서는 8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고 같은 기간 중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크게 늘어 항공편과 배편이 오래 전에 동이 났다는 후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한일 우호의 밤 행사는 양국 수교50년을 맞이해서 올 가을 도쿄에서 개최되고 한일축제한마당과 일한축제한마당도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한일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문화, 관광, 스포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500만 명 이상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교류의 한 가지 사례로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무역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IT마스터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1천여 명의 수료생들이 일본에 취업해 양국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에서 보여준 양국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스포츠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언론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아시아 번영을 함께 추구해나가는 중요한 이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교 이래 50년의 기간을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양국경제인들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50년을 기약하고 준비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긴 안목에서 한일관계를

보면서 저는 한일 양국이 확대 심화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동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해 세계경제의 순환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이 자리에 계신 양국의 대표적인 경제인들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한일 양국 앞에 놓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양국 관계의 과거를 의미 있게 해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현명하

게 현재를 선택한다면 미래는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인 이 시점에서 우리 양국의 경제인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호혜와 협력을 기본으로 했던 과거의 양국 관계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나간 5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50년의 협력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같이 써나가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특별 강연

도쿄대학
명예교수 강 상 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의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을 쓰고 일본에서 자라서 저는 일본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의에서 일본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0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런 회의 자리에서 제가 또 특별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을 낳아주신 나라 그리고 또 일본을 키워주신 나라 부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와 키워주신 부모가 싸우면 아이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의미에서 과거 일본에서는 반 쪽바리라고도 불렸고요 저는 반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국 일본 그 어느 쪽에도 붙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한일 일한 조약협정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교만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그에 걸맞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한일관계의

교착상태와 긴장은 지금 국제정세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일 일한의 정상회담조차도 아직 열리지 않았고 경제, 무역, 투자 분야도 정체되어있고 또 한편 언론에서는 협한과 반일의 보도, 논조가 확산되어 있고 재일한국인을 타깃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조차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삼성은 일본 수출용 최신 스마트 폰에 있는 자사 로고를 지우고 출시할 수밖에 없는 등 국경을 초월한 시장 경제의 움직임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가 합의한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그리고 한류 붐의 확산, 한일 간의 유례없는 규모의 인적 교류 확대를 생각해보면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는 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 미디어가 비추는 협한과 반일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배양해 온 한일 관계의 교류와 인맥은 결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젊은 이들의 수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호불신과 대립의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정 레벨과 국가 간, 정상 간의 협상에도 반영되어, 한일 간에 재연되고 있는 역사 문제와 또 영토 문제를 둘러싼 상호 타협과 화해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큰 패러독스 역설과 조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그 경제력과 자유민주주의, 여론과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선진국의 영역에 이르렀을 그 두 인접 국가 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립과 상극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그러한 역설입니다. 한국이 개발독재형 사회로 민주화도 미숙했던 시대 한일 일한의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대외적인 관계는 특정 그룹과 로비스트들의 비공식적인 인맥과 루트에 의해 교묘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한일 양국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양국 관계를 흔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일한 간의 유착이라고 비판을 당하면서도 한일 일한 간의 공식적인 외교나 채널은 국가 간의 관계와 공식적인 외교와 짝이 되어서 한일 일한의 연계를 관리 지휘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 및 그 계승자가 주도하는 군부 중심의 개발독재형 시대였습니다. 한편 그 당시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최대 야당인 사회당이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안정된 55년 체제였습니다. 그 시대 안정된 한일 일한 관계는 1965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한일 일한 기본조약에 의한 국교정상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약이 여러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해도 한일 일한 국교정상화는 한일 일한 양국

에 큰 성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한일 일한 양국을 왕래하는 사람 수가 수 백 배로 늘어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한일 일한 조약 기본조약에 의한 국교정상화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일 일한 양국의 안정이라고는 해도 거기에는 국민적인 교류와 이해의 저변이 차치하고 극히 일부분 한정된 중요 부분과 유형무형으로 이어진 비공식적인 인맥이 주도하는 협력관계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냉전이 끝나고 세계의 다극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개방후의 체제의 틀이 변화를 강요받던 중 동아시아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저하, 나아가 한일 간의 경제적인 경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일한 양국의 사회 내부로 눈을 돌리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동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구조의 변화, 나아가 성장률의 둔화와 또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등 성숙사회의 정제적인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 한일 일한 양국 모두 해방 후, 혹은 전후 한일 일한 양국을 성장궤도에 올려온 개발주의적인 사회 체제 개혁이 현재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이, 또 한국에서는 세월호사고가 일어나 사회 변동에 따른 개인 불안과 사회 분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한일 일한 양국은 냉전기의 안정과는 다른 포스트 냉전기의 구조적인 지각변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불안과 사회 분열이 두드러지는 시대는 사회 안정이 훼손되어 지나친 애국심과 국가주의가

그 반동으로 대두되기 쉽습니다. 국가에 대한 emotional한 애착과 개인이 그 국가와 동일시하는 감정의 정도는 사회 안정도에 반비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 간에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면 이는 양국의 사회 분열을 완화하는 중산층의 가치와 욕구의 공분모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향이 한일 일한 양국 간의 갈등에 의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양국의 긴장을 높일만한 현안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 경우 기본적인 방침은 역사와 영토에 관련된 문제와 현재의 구조적인 지각 변동에 따른 안전보장과 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와의 decoupling 즉 분리를 도모하면서 이견을 남기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구존동이의 한일 일한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방침에 선다면 과거 청산에 대한 일본 측의 전후 해방 후 70년 담화 메시지는 저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관한 일본의 기본적인 인식을 대외적으로 밝힌 무라야마 담화 정신과 문언은 충실히 계승되어야 합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구존동이의 정신에 근거한 역사 인식의 세계 기준으로써 국제사회에 정착하고,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 지위를 깎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2년 일본과 북한 간에 체결된 일본과 조선의 평양선언에는 무라야마 담화 정신을 계승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끼친 큰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50

년 전의 한일 일한 기본조약에는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청산이라고 해도 역사적인 변화와 함께 청산과 관련된 역사 인식은 극명히 깊어져 변화를 이뤄 온 것이며 그것은 미래를 위해 계승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일 관계 일한 관계의 초미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저절로 해결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일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의 제2조에는 한일 일한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양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냉전 붕괴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큰 국민적 과제로 부상하고 '협정'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가 한일 일한 관계를 흔드는 중대한 요인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단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성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문제를 갖고 있고 한국 측 피해자와 그 지원단체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아시아 여성기금을 둘러싸고 일본정부와 민간단체는 매우 큰 노력을 했다는 사실조차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에 그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골이 메워지지 않은 채 뒤엎히고 있고 국민감정의 대립되면서 더욱더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국 측의 지원단체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정과 책임 이행'을 중시하는 입장이 밝혀지고 있어서 저는 해결의 실마리가 서서히 보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죄의 표시로써 일본 정부가

배상하는 것이며 그것을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지위와 명예, 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거론해야 하는 것은 다케시마 즉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입니다. 올해는 그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제2차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작은 암초를 둘러싸고 바위섬을 둘러싸고 왜 한국과 일본이 다투어야 하는지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상하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영토분쟁이라는 것은 반대로 본다면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 유럽 각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최대의 악재였습니다. 오늘날의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각국이 벌이는 분쟁도 이 영토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 간에도 이 영토분쟁을 국내 정치의 역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독도가 즉 다케시마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현명한 선택지는 양국이 각각의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병기하면서 분쟁의 규모를 키우지 않고 동결한 채 그대로 동결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찌서 한국 국민들은 이 작은 바위섬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열의를 쏟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다케시마의 귀속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양국 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한일 양국 안에 검정제도, 역사교과서 채택 등을 둘러싸고 여러 분야의 상호교류를 도모하면서 서

로 투명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거 청산과 최대한 구별된 형태로 분리된 형태로 한일 양국이 직면한 안전보장과 경제 등의 문제에서 서로 조정을 하고 협력관계를 더욱더 확대해 가는 것이 저는 한일 일한 양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무엇 보다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중국의 지정학적 대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시아 새로운 냉전 구조 형성으로 이어질만한 적대적인 봉쇄정책이 아니라 전략적인 호혜관계에 기초한 관여정책 engagement policy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대두하는 대국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봉쇄하려는 기존 대국에 대한 공포가 서로의 공포를 유지해가면서 그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 군비경쟁에 나서게 된다면 아시아에 새로운 냉전 형태의 대립구조가 만들어지고 한일 양국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패권적인 세력 확대로 나아가갈 경우에 이에 대응해서 한국과 일본, 일본 한국 또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의한 억지력으로 대처를 하고 그와 동시에 중국도 포함시키는 중층적인 지역연계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력 즉 국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지정학적 본다면 독일과 같이 중규모의 국가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은 중국과는 달리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웃 국가입니다.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협력과 연계가 맡은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그리고 한국과 일본 또는 일본, 중국을 모두 포함시키는 FTA 그리고 TPP분야에서도 밀접한 협력관계를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공존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연계는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긴장 완화와 공존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란과 6개국에 의한 핵 협상은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만 이란과 미국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긴 여정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란과 북한을 바로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도 단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시아의 다국간 안전보장을 목표로 하는 6자 회담의 틀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 협의는 중단된 채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외교적 그리고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끈기 있게 노력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의사를 항상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남북의 긴장 완화와 공존은

한일 양국 공통의 이익이 되고 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끝으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미래를 짚어지는 젊은 세대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한중일 3개국 간의 3개국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각각의 나라의 대학에서 배우고 교류를 하는 Campus Asia 구상이 이미 시작되고 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Campus Asia에서는 대학 관계자 또 교육 행정의 관찰관청 나아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Campus Asia 구상을 동아시아 버전의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학점 호환 등 대학 간의 제도적인 평준화와 공통화를 추진해서 대규모 학생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의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한일 일한 양국 협력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전후 70년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저의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반추해보아야 할 사항은 서로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진심으로 교우한다는 우리 선대들의 지혜입니다. 이 모임이 더욱 결실 있는 큰 성과를 내는 한일의 다음 50년을 향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 말씀을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엔저의 지속과 일본의 대응

- 미일 금리차익을 노린 국제투기꾼들의 달러매입 쇄도로 달러당 124엔대까지 엔저 가속
-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중심의 수익구조로 바뀐 일본산업구조의 변화로, 엔저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영향은 과거만큼 크지 않음
- 그동안 엔저기조를 환영해 왔던 일본정부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급격한 엔저·달러고를 견제하는 양상

□ 12년 6개월만에 124엔대 부활

- 엔화환율이 5월 28일 12년 6개월만에 124엔 46전까지 하락
 - 일본은행에 의한 추가 금융완화 직후인 2014년 11월 이후 6개월반 만에 최대 하락폭임

1. 배경과 전망

□ 국제 헤지펀드에 의한 달러매입 쇄도

- 일본은행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차익을 노린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이 이번 엔저의 배경임
- 헤지펀드 등 국제 투기꾼들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이번 엔저국면에서 최대 규모의 엔매도·달러매입에 개입
 -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하면 국제투기꾼에 의한 엔 매도초과액은 5월 26일 시점에서 7,778억엔
 - 2012년 아베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작된 엔저국면에서 엔 매도초과액의 증가폭은 이번이 가장 큼
- 이번 엔저의 시발점이 된 것은 5월 22일 옐렌 미국 FRB의장의 금년 중 금리

인상 발언임

- 5월 22일 옐렌 FRB의장의 금리인상 발언으로 엔저가 재연, 트렌드 팔로어(Trend Follower)라고 불리는 헤지펀드가 일제히 엔 매도에 나섬
- 그러나 이번에는 엔저가 과도하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엔저가속을 경계하는 통화당국과 헤지펀드의 신경전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

□ 금년 내 125-130엔대 전망도

-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은 금년 9월에서 12월에 걸쳐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상
 - 미국의 금리인상 관측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미일간 금리차 확대를 노린 시장참가자들이 많아질 것이기에 때문에 125엔 이하로 엔저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대규모 금융완화로부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본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 미국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는 한층 활기를 띠 것임

□ 그러나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 엔저 주춤

- 다만 미국 시카고 머컨타일거래소에 의하면, 금년 중 금리인상 확률은 60%정도이며, 그리고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금년 중에는 1회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음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경우 엔저·달러고의 기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남아있음

2.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엔저의 플러스 효과, 산업구조 변화로 과거만큼 크지 않아

- 현재 일본경제는 과거 수차례의 엔고국면에서 해외로의 생산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무역 대신에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산업구조로 변화된 만큼, 엔저가 이전만큼 경제의 기폭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 수출·투자 증대 효과는 미약

- JP모건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엔저에 의한 수출물량증가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설비투자나 고용에의 파급효과도 약함
- 실제 2014년의 수출과 설비투자는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무역수지 적자 확대

- 동일본 대지진후 연료수입 증가요인도 가세함에 따라, 2007년에 10조엔이었던 무역수지 흑자가 2014년도에는 9조엔의 적자로 크게 반전

□ 무역외수지는 흑자 확대

- 수출에 대한 엔저의 플러스 영향은 약해졌으나, 방일 외국인들의 소비나 지적재산권 수입은 엔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당 120엔대라면 전체적으로 플러스라는 평가가 많음

□ 주가상승 효과

- 엔저가속은 일본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본의 주가는 5월 28일 이전 주말까지 11일 영업일 연속 상승, IT버블시의 최고치 20,833엔에 육박
 - 일본 주식시장에는 금년말까지 주가가 가일층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엔저 외에도 공적연금,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도 주식매입 요인과 주가상승 요인 가세
 - 기업의 경영규범을 정한 기업지배구조지침이 6월 1일부터 운용되기 시작하는데,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주식의 상호보유 해소, 주주환원책의 확충 등이 기대되고 있음
- 일본 국내경기는 회복기조에 있고 임금인상, 투자확대 등 기업을 기점으로 한 경기의 선순환이 확산되고 아베노믹스 전체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게 되면 25,000엔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음
 -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이 일본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불투명성이 많고, 미국 주가의 대폭적인 조정 등 악재도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소리도 있음

□ 기업이익 증가

- 달러당 1엔의 엔저는 상장기업들의 주당이익(EPS)을 0.4%, 경상이익을 0.5% 증가시킴으로써 주가상승을 부추김
 - SMBC 일흥증권에 의하면, 달러당 1엔 엔저 시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0.5% 증가
 - 엔저가 전체로서는 플러스로 작용하기는 하나, 원재료나 상품구입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내수기업과 비제조업에서는 달러당 120엔대의 엔저 정착을 예상하여 수익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GDP 증대효과

-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시산결과에 의하면, 달러당 엔화환율이 122엔에서 130엔까지 하락하는 경우 GDP증대효과는 0.21%에 그침

□ 물가상승 효과

- 2014년에는 유가하락이 엔저에 의한 수입코스트 증가분을 흡수했으나, 2015년 봄 이후에는 유가가 바닥권에 들어감에 따라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이 가계나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엔저 가속은 연료와 식료품 등 수입품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모리나가제과와 야마자키제빵은 엔저 등을 이유로 7월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

- 달러당 124엔대까지 엔저가 가속되자 기업들이 대응하기 시작
 - 일본제지는 2016년 3월 결산기에 전단지 등에 사용하는 양지와 단보루 원지 등 판지의 수출수량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20%정도 늘릴 계획
 - 혼다와 같이 엔저의 장기화를 예상하여 국내생산 비율을 높여 엔저 메리트를 향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환율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영체제가 정착

□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일본 회귀

- 전기, 자동차 등 제조업은 엔고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겨 갔는데, 엔저의 장기화로 현재는 국내생산이 회복되고 있음
 - 파이오니어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시판용 자동차내비의 생산을 태국에서 일본 국내로 이관, 판매대수는 연간 약 38만대로 절반정도는 아오모리현 내 공장에서 생산할 전망
-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
 - 혼다는 멕시코나 영국으로부터 주력 소형차 피트의 생산을 일본 구내로 이관, 수출비율을 전기 3%에서 10%까지 높일 방침
 - 닛산자동차의 칼로스 곤 사장도 국내생산 확대를 시사

3. 일본기업들의 대응

□ 수출비율의 상향조정

□ 가격전가

- 무어니 해도 즉효성있는 엔저대책은 가

격 조정임

- 야마자키 제빵은 7월에 식빵과 과자류의 가격을 2년 만에 인상. 연초에는 밀가루 등의 원재료 비용이 전기보다 8억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엔저의 가속화로 30억엔 정도까지 확대
- 유니크로를 운영하는 퍼스트리테일링은 엔저와 원재료가격 상승을 이유로 2015년 추동상품을 대상으로 2년 연속 가격인상을 결정. 엔저기조가 계속되면 내년 이후도 가격전가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

□ 기타 환 예약 등

- 니트리홀딩스는 수입대금 지물에 사용하는 달러를 일정 레이트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환예약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2월 결산기에는 달러당 101엔 강, 2017년 2월 결산기도 108엔정도로 환예약을 마침

4. 일본 정부의 반응

- 그동안 엔저기조를 환영해왔던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 아소 재무·금융상은 5월 28일 G7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 급격한 환율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후, 최근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며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급격

한 엔저·달러고를 견제

- G7은 2013년 2월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소 재무·금융상은 이합의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함
- 환율의 급변은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기회복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임

-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엔저에 대하여 기자회견에서 예상한 범위내로 급격한 변동은 아니라고 함
- 이 같은 발언도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엔저용인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
-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급속한 하락이 계속되면 미일의 정부관계자들로부터 강하게 경계하는 발언이 나와, 더 이상의 엔저를 방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아소 재무·금융상의 발언이 국제투기꾼 주도의 급속한 움직임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기 때문임
- 다만 말로만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엔매도초과액은(잔고 기준)피크시의 절반정도로, 헤지펀드 등이 엔매도에 나설 여지는 남아있음

<참고자료>

일본경제신문(2015.5.27/28/29, 6.3)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과 전망

- 2015.4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속보치)에 의하면, 무역수지가 2,293억엔의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6월 이후 33개월 만에 수입 감소에 따른 흑자로 유가와 환율 등의 가격변수의 향방에 따라 다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제구조가 수출입국형에서 투자입국형으로 바뀌고 있어 J커브효과에 의한 수출물량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5.3월의 무역수지 흑자화가 아베 정부가 기대하는 J커브 효과의 본격화 신호인지 아니면 일과성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33개월 만에 무역적자 탈출

- 2012년 6월 이후 지속된 일본의 무역적자 행진이 멈추고 3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2,293억엔 흑자로 전환
 - 전년동월의 1조 4,501억엔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반전
 - 전월의 4,250억 엔의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

□ 흑자전환의 최대 요인은 대폭적인 수입의 감소

- 흑자전환의 최대 요인은 전년동월에 비하여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데 있음
 - '15.3월 수입은 6조 6,981억엔으로 전년동월비 14.5% 감소
 - 일본의 총수입에서 30% 정도 점하는 원유 등 광물성연료의 수입액만 17조 6,559억엔으로 전년동월비 36.5% 감소
 - 엔저가 수입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고 남은 만큼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

- 광물성연료 외에도 철강과 비철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등도 일본의 국내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수입이 감소

- 한편, 3월의 수입은 증가했는데, 이는 전월에 비해서는 유가하락이나 엔화환율의 변동 폭이 적었기 때문에 변동 폭이 컸던 전년동월만큼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을 시사

□ 수출은 물량증가와 엔화표시 수출가격 상승으로 증가

- '15.3월 수출액은 6조 9,274억엔으로 전년동기비 8.5%증가했는데, 이는 수출물량, 수출가격 모두 기여함
 - 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119.86으로 작년 3월에 비하여 17%이상 엔저
 - 수출증가율 8.5%를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로 나누어 보면, 가격효과가 5.1%

로 물량효과 3.5%를 상회, 엔저에 의한 수출금액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가격하락 폭이 컸음

□ 對美 자동차 수출이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

- 수출물량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로 승용차·버스·트럭 등 50만 4,426대로 전년동월비 1.9% 증가
- 아베노믹스의 실시 이후 자동차분야의 수출금액은 늘어났어도 물량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수출물량 증가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동월보다 10.5% 증가

□ 전기기기는 아직까지 수출물량효과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

- 부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기기기 분야에서 수출은 아직 여의치 않음
 - 전기기기의 수출은 1조 1,657억엔으로 전년동월비 8.5%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모두 감소
 - 영상기기는 16.8% 감소, 음향기기는 15.35% 감소, 반도체전자부품은 4.0% 감소
- 엔저에 의해 기업들의 채산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이것이 수출물량의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수출상대국별 수출 특징

-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對美 수출이 호조

- '15.3월 對미국 수출액은 21.3% 증가, 4개월 만에 2자리대의 증가율을 기록
- 작년 12월 이후 엔저에 의한 가격효과에 더해 수량도 증가로 반전함으로써 3월의 수출물량이 5.9%나 증가

- 對중국 수출은 둔화경향이 지속
 - '15.3월 수출금액은 3.9%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0.8% 감소, 2개월 연속 마이너스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인 중국경제가 부진함에 따라 미국경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음

□ 對한국 무역흑자도 확대

- '15.3월 일본의 對한국 무역흑자는 2,302억엔으로 전년동월비, 전월비 모두 확대
 - 전년동월비('14.3월)로는 1,840억엔에서 462억엔 확대
 - 전월비('15.2월)로는 1,848억엔에서 454억엔 확대
- '15.3월 對한국 수출은 4,870억엔으로 전년동월비 4.4% 증가, 전월비로는 14.6% 증가
- '15.3월 對한국 수입은 2,780억엔으로 전년동월비 8.3% 감소, 전월비로는 7.5% 증가

□ 전망

- 이슈는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될 것인가 하는 것임
 - 일본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
 - 과거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13년도

13조 7,500억엔에 비하면,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2014년도에도 1,343억엔의 적자를 기록

-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원전 중단에 따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량 증가에 있으나, 에너지절약의 확대로 전력사용량 감소 등 원유와 LNG의 수입량증가 억제
 - 작년 말부터 대폭적인 유가하락까지 겹쳐 수입금액도 크게 감소
-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할 경우, 다시 수입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엔저 경향이 계속되는 한, 에너지비용이 무역수지구조에 큰 부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음

□ 수출입국형에서 투자입국형으로의 경제구조 향방

- 엔저가 수출가격 하락효과라는 비용면에서의 이점만을 가져온다면 문제는 없음
-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J커브 효과에 주목
 - 엔저가 되면 처음에는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임
 -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J와 같은 형

태를 그리게 된다는 점에서 J커브효과로 불리고 있는데, 2년 반이 경과한 지금도 J커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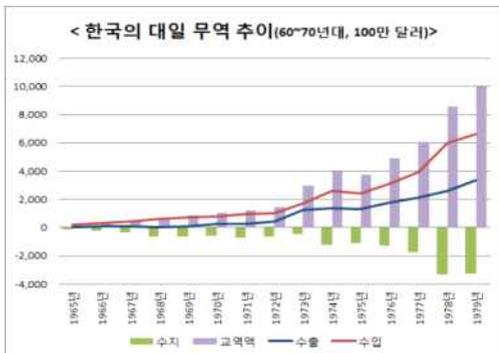
- 한편, 일본기업들은 최근 10년 동안 제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엔고대책을 강구해오고 있어, 엔저가 되어도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
 - 일본의 경제구조는 수출입국형에서 투자입국형으로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것임
- 역으로 부품을 해외공장에서 들여오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히려 엔저로 가격이 상승,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음
- 일본 국회에서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가 반드시 일본에게 수출증가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을 따름이라는 야당의원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5.3월의 일본의 무역수지흑자화가 아베 정부가 기대하는 J커브 효과의 본격화 신호인지 아니면 일과성 현상으로 끝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끝 

한일 경제관계 50년의 궤적

* 이 자료는 동양경제일보('15.4.10) 「국교정상화 50주년 특집」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는 많은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
- 최근에는 양국 간 협력을 넘어 글로벌한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50년도 한일 경제관계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1960~70년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체결한 '65년 당시 양국의 교역액은 2.2억 달러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으로 한국의 대일 수출은 약 4,500만 달러
- 한일 간의 본격적인 경제교류는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획득한 배상금(유·무상 5억 달러)를 활용한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개발 5년 계획」부터 시작
- 한국정부는 이 자금을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이나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 이 과정에서 일본의 설비나 기자재, 기술 등을 도입

- 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교류가 활발화
- 신진자동차공업(대우자동차의 전신)은 도요타자동차와 연계하여 승용차나 버스, 트럭 등을 한국에서 생산
- * 국산화율 20% 수준의 코로나, 크라운, 랜드크루저 픽업, 도요타 중형 트럭, 대형 히노 TC 트럭, 히노 RC320PT 고속버스 등을 생산. '72년에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 진출을 위하여 신진자동차에서 철수, 연계를 해소하자 신진자동차는 제너럴 모터스(GM)과 합작으로 GM코리아를 설립
- 또한 기아자동차가 도요공업과 연계하여 마쓰다*의 승용차를 생산, 현재 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가 자본·기술 연계를 체결 하는 등 양국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됐음
- * 1920년 코르크를 생산하는 회사로 창업된 도요공업은 '31년부터 3륜 트럭(2대 사장 성에 따라 「마쓰다호」로 불림)을 생산 개시. '71년에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과 기술 연계, '83년에 자본 연계를 체결하고 '84년

부터 자동차 브랜드에 맞춰 마쓰다 자동차로 사명 변경

○ 70년대에 들어가며 한국 산업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제조설비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정착

- 또 저렴한 노동력이 강점인 한국시장에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진출, 마산수출자유지역 등 경제특구에 공장을 설립
- 하지만 아직 상호 이해가 부족하여 「스미다전기 사건」*과 같은 노사 문제 등으로 철수하는 일본기업도 많았음

* 한국스미다전기가 '87년에 노조를 구성, '89년에 임금이 2배까지 급등하고 근무체제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일본본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해고를 통보. 한국스미다전기 노조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도쿄본사 앞에서 단식 시위를 하면서 협상, 일본국내에서도 비판이 고조되어 스미다전기는 요구한 퇴직금 등을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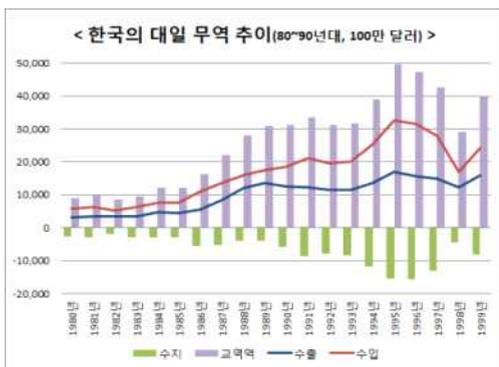
○ 한일 양국은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협력이나 자본연계를 추진했지만 산업구조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

- 한국은 전자첨단부품이나 기계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을 늘리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대일 적자도 늘어나는 「무역역조」 구조가 부각
- '86년 이후 한일 양국은 서로 제2의 무역 상대국이 되고 '89년에는 양국의 무역 규모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
- 한국정부는 대일 적자 해소를 위하여 일본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실시나 부품 국산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추진했지만 큰 성과는 보이지 않았음

○ '92년에는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하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 한일 간의 새로운 경제교류를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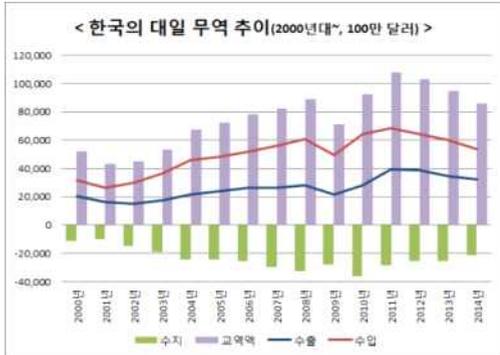
- '98.10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발표된 한일 정상에 의한 공동선언의 부속문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안에서 경제 측면의 협력 관계 강화가 주장되었음
- 사실상 대일수입 규제조치였던 수입다변화 제도도 '99.6월 폐지, 전기제품 등 일본제품이 한국시장에서 유통

□ 1980~90년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0년대 이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0년에는 교역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 90년대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설비나 소재·부품을 도입하여 조립하고 수출하는 패턴이었으나 최근에는 첨단 분야에서 세계 톱 수준에 도달한 양국이 경제 파트너로서 Win-win의 관계를 구축
- '11년의 교역액은 과거 최대의 1,080억 달러를 기록, '12년 이후는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4년은 859억 5,200만 달러에 그침
- 한편 한일FTA 협상은 '04.11월 이후

중단, 국장급 사전협의 등을 실시했으나 아직 협상 재개의 전망이 보이지 않음

- 한편 양국 기업에 의한 합작 사업이 활발해져 한일 기업들은 파트너로써 기술 협력이나 공동투자를 추진, 한국국내뿐만 아닌 제3국 진출 사례도 증가
- 한일 간의 인적교류는 50년간 비약적으로 확대, 국교정상화 당시 상호 방문자 수는 연간 1만 명 미만이었으나 현재 500만 명을 돌파
 - 월드컵이 한일 공동으로 개최된 '02년의 양국 방문자 수는 359만 명, '10년에는 546만 명으로 약 52% 증가했으며 '12년에는 과거 최고의 556만 명을 기록
 -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드라마나 K-pop 인기로 시작한 한류 붐으로 인하여 일본인 여성의 방한이 급증
 - 최근엔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증가, '14년에는 276만 명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하여 '11년의 166만 명에 비하여 3년간 66.2% 증가

< 최근 한일 기업 간 협력 사례 >

	기업		내용	시기
제3국 공동 진출	삼성엔지니어링	미쓰이화학	인도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 공장 수주	2011년
	한국전력	쓰미토모상사	중동 아부다비 발전소 건설 공동 참가	2011년
	한국가스공사	미쓰비시상사	인도네시아 LNG 생산기지 공동 개발	2011년
	대우건설	미쓰이물산	모로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2011년
	현대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사우디아라비아 화력발전소 수주	2012년
	한국전력	미쓰비시상사	요르단 화력IPP 프로젝트 장기매입 계약	2012년
	대림산업	소지쓰	베트남 오몽화력발전소 2호기 수주	2012년
국내 합작	삼양그룹	미쓰비시화학	이온 교환수지 생산 합작회사 설립	2014년
	SKC	미쓰이화학	폴리우레탄 재료 사업 합작회사 설립	2015년



자료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 시사점

○ 한국의 대일 수출은 약 4,500만 달러 ('65년)부터 시작하여 50년간에 321억 8,400만 달러('14년)로 약 715배 증가, 양국 교역액은 최대 1,080억 달러('11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어 왔음

- 노사 문제에 의한 일본기업의 철수나 대일수입 규제조치의 실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일도 있었지만 투자나 기술협력, 각종 행사('02년 월드컵 공취, '05년 한일우정의 해, '08년 한일관광교류의 해 등)를 통하여 경제·인적 협력 관계를 강화

- 최근에는 보다 많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제3국 공동 진출도 추진, 양국뿐만 아닌 글로벌한 협력이 가속

○ 관계 악화의 위기를 여러 번 극복해 온 한일 양국의 경제는 끊임없이 끊임 없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세계에 대하여 바람직한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서 향후 경제적 연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참고]

< 한일 관계 50년의 발걸음 >

1964. 4	· 국영대한항공공사와 일본항공이 하네다-김포 간 공동 운항 개시
1965. 6	· 한일기본조약 공식 조인
12	· 한일기본조약 비준서의 교환으로 국교정상화
1966. 1	·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발효
1967. 6	· 사토 에이사쿠 총리, 박정희 제6대 대통령 취임식 출석을 위해 방한
8	· 제1차 한일정기각료회의(도쿄)
1969. 2	· 제1차 한일협력위원회 출범
1970. 6	· 부간(釜關)페리 취항
1971. 2	· 재일조선인의 북한 귀환 합의서 조인
6	· 사토 에이사쿠 총리, 박정희 제7대 대통령 취임식 출석을 위해 방한
1972. 5	· 한일의원 간담회(의원연명 전신) 창설
1973. 8	·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
1974. 8	·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육영수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
1977.11	· 한일신선협회 출범
1978. 6	· 한일대륙봉협정 비준서 교환
1979. 7	· 서울에서 한일항공회담

1980.10 11	· 한일어업자주규제각서 교환 · 한일해저케이블 개통
1981. 1	· 제1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를 둘러싼 한일실무회의(도쿄)
1982. 7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외교문제로
1983. 1 12	·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공식 방한 · 제1차 한일문화교류 실무자회의
1984. 9	· 전두환 대통령 공식 방일
1990. 5 9	·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일 ·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대표들이 북한 방문, 북일수교원칙에 합의
1991. 1	· 가이후 도시키 총리 방한
1992. 7	·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조사결과 발표
1993.11	·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방한
1994. 3	· 김영삼 대통령 일본 공식 방문
1994. 7	·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방한
1995. 6 8	· 일본 국회, 과거의 반성과 불전 결의 · 무라야마 총리, 식민지배와 심략 사죄(무라야마 담화)
1996. 5	· 2002년 월드컵 한일 공최 결정
1998. 9 10 11	· 한일어업협상 타결 ·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 방문 · 일본 대중문화 제1차 개방 · 가고시마현에서 제1차 한일각료회의
1999. 3 9 10	· 오부치 게이조 총리 한국 공식 방문 · 일본 대중문화 제2차 개방 · 오부치 총리, 한일각료간담회로 제주도 방문
2000. 5 6 9	· 모리 요시로 총리 서울 방문 ·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전총리 조문을 위해 방일 · 김대중 대통령 방일
2000. 8 10	·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김대중 · 고이즈미)
2002. 6	·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2003. 2 3 6	· 고이즈미 총리,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 · 드라마 「겨울연가」 일본 방송, 한류 붐으로 · 노무현 대통령 일본 공식 방문
2004. 7 12	· 제주도에서 한일정상회담(노무현 · 고이즈미) · 가고시마현에서 한일정상회담(노무현 · 고이즈미)
2005.	· 한일 우정의 해
2008. 2 4	· 한일 관광교류의 해 · 정상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이명박 · 후쿠다 야스오) · 이명박 대통령 일본 방문
2009. 1 10 10	· 아소 타로 총리 서울 방문 · 한일축제하마당 서울 · 도쿄에서 동시 개최 ·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서울 방문
2010. 6	· 캐나다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이명박 · 간 나오토)
2011. 9	· 국련총회에서 한일정상회담(이명박 · 노다 요시히코)
2013. 2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아소 타로 전총리 참석
2014. 3	·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박근혜 · 아베 신조 · 오바마)

일본 경제 동향 _ 2015년 5월

- 일본 제조업의 과제와 대응 -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동향지수 (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0.7	109.2	-
GDP증가율(연율,%)	1.6	△0.0	5.1	△6.4	△2.6	1.5	2.4p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21.4	16.3	17.7	16.2	19.8		-
	공공투자	23.0	24.5	6.6	4.2	5.2	7.3	7.2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2.6	2.0	2.1	4.9	3.5	1.4	0.9	-
소비자물가	전기비	0.4	2.6	0.2	2.3	0.3	△0.1	△0.3	△0.1	0.4
상승율(%)	전년동기비	0.4	2.6	1.3	3.3	3.2	2.7	2.1	2.0	2.2
실업율(%)		4.0	3.6	3.6	3.6	3.6	3.5	3.5	3.5	3.4
수출(조엔)		69.8	73.1	17.5	17.6	18.3	19.8	18.9	5.9	6.9
수입(조엔)		81.3	85.9	22.4	20.2	21.2	22.1	20.4	6.4	6.7
무역수지(조엔)		△11.5	△12.8	△5.0	△2.6	△2.9	△2.3	△1.4	△0.4	0.2
경상수지(조엔)		3.3	2.6	△0.9	0.3	1.7	1.4	4.2	1.4	2.8
환율	달러	97.7	105.8	102.8	102.1	104.0	114.3	119.1	118.6	120.4
	원화(100엔)	1,123	996	1,039	1,008.2	987.3	950	923.3	926	924
금리(10년물,%)		0.72	0.55	0.63	0.60	0.53	0.44	0.34	0.37	0.38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4,958	14,655	15,562	16,660	18,226	18,053	19,198
									19,198	19,768

주 : (p)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

○ '15.3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2로 전월비 1.5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세 반전

○ '15.3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

□ (무역수지) 무역수지, -550억엔으로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반전

○ '15.4월 수출은 6조 5,500억엔 수입은 6조 6,050억엔

□ (환율) 엔저기조 유지

○ '15.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9.6엔으로 전월대비 0.7% 엔고

* '15.4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11원으로 전월대비 1.4%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유지

□ (경기기조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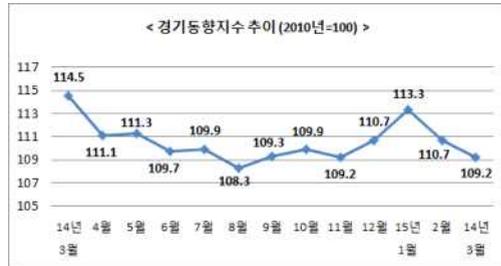
- 수출과 생산이 회복기조에 있고 설비투자도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소비도 아직도 역부족이긴 하나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
- 다만 '15.3월의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100)는 전월보다 1.5p 저하된 109.2로 2개월 연속 하락
 - 경기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마이너스인 가운데, 소매판매액의 감소폭이 컸고, 생산과 출하 관련지표도 악화
- 일본 내각부는 경기동향지수의 월별 변동 폭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경기에 대한 기초판단을 전월과 같은 개선으로 고정

□ (전 망)

- 당분간은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전망
 - 수개월 앞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7p 상승
 - 고용 및 임금소득의 개선과 함께 유가하락, 경제대책의 효과 등이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전망
 - 수출은 엔저기조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감속으로 인한 해외수요 부진으로 큰 폭의 증

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경제활동 수준은 여전히 잠재생산량을 하회하는 상태가 계속될 전망



자료 : 내각부

<GDP>

□ '15.1분기 2.4% 성장

- '15.1분기 실질 GDP성장율(1차 속보치)은 전기비 0.6%, 연율 환산으로는 2.4%, 2분기 연속 플러스로 일본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치 평균 1.84%를 상회
- 소비세율 인상 후 침체된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외에, 기업수익의 개선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활성화, 주택투자의 플러스 반전 등이 플러스 성장에 기여
 - 개인소비는 전분기와 같은 전기비 0.4%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 주가상승과 임금인상 기대에 따른 소비마인드의 개선이 소비회복에 기여
 - 설비투자는 전기비 0.4% 증가, 4분기 만에 증가로 반전 : 엔저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으로 설비투자의욕이 활성화
 - 주택투자도 전기비 1.8% 증가했으나 공공투자는 1.4% 감소
 - 수출은 전기비 2.4% 증가: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GDP통

- 계에서 수출로 포함되는 방일외국인의 상품구입 증가가 수출증가에 기여
- 수입은 전기비 2.9% 증가: 내수 회복에 따라 수입량도 증가
- '15.1분기 GDP성장률이 '14.4분기보다 높은 데 이어, 2015년 연간으로도 2014년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

- 2014년 GDP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0.1%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2015년에는 엔저기조의 정착에 의한 수출환경 개선과 유가하락의 영향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등이 플러스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p)
전기비			1.2	△1.8	△0.5	0.3	0.6
전기비연율	1.6	△0.1	4.9	△6.9	△2.1	1.1	2.4
전년동기비			2.4	△0.4	△1.4	△0.9	△1.4

자료 : 내각부, (p)는 1차 속보치

〈 국내 투자 〉

□ '15.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공공투자)는 전기비 실질 0.1% 감소

- 명목기준으로는 14.9% 증가

□ (민간설비투자)

- '15.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2.9% 증가한 19.8조 엔, 국내투자의 73.3%를 차지

- '15.3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6.3% 증가

- 그러나 2분기에는 1분기 증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계수주액은 감소할 전망
- 일본 내각부는 3개월 연속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이라는 기초판단을 유지

- 앞으로 엔저기조의 정착, 유가 하락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생산 및 기업이익 회복 등에 의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자료 : 내각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공공투자)

- '15.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1.4% 감소한 7.2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6.7%를 차지
- '14.12월에 발표된 3.5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 중 0.9조엔 정도가 공공투자 로 지출될 예정이며, 효과는 2015년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코어코어 CPI)은 0.2%로 일본은행이 설정한 2년 내 2%의 물가상승목표에는 크게 미달

- 당분간은 유가하락과 엔저의 상반된 영향으로 횡보권에서 추이할 전망

〈소비자물가〉

□ '14.3월 소비자물가, 5개월 만에 상승 반전

- '14.3월 소비자물가상승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0로 전월비 0.4% 상승,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
 - 원유 등 에너지가격의 하락폭 축소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
-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했으나

〈실업률〉

□ 고용의 개선상황 유지

- '15.3월 완전실업률은 3.4%로 전월보다 0.1%p 저하, 고용상황이 개선
 - 청년근로자의 취업증가가 실업률 저하에 기여
- '15.3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15배로, 기업의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손 부족 현상이 지속
 - 숙박업, 음식서비스,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업 관련 신규구인수요가 크게 증가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 (총 합) 33개월 만에 이룩한 3월의 흑자가 4월에 다시 적자로 반전

- '15.4월 무역수지는 약 550억엔 적자로,

33개월 만에 이룩한 전월의 흑자가 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섬

- 적자 반전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월의 큰 폭의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된 데 기인

- 對 미국 무역흑자가 전월의 6,031억 엔에서 6,499억엔으로 확대되었음에도, 對 중국 무역적자가 전월의 1,741억엔으로 4,759억엔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전체 무역적자에 기여

- 앞으로 내수회복에 따라 수입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2015년 4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9	8.5	16.9	6.6	8.0	-4.3	25.5	8.5
수 입	6.7	-14.5	4.7	6.6	-4.2	-1.5	27	-8.2
수 지	0.2	-	-	-0.1	-93.5	-	-1.5	-74.6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4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전월보다 감소

- '15.4월 수출은 전월보다 4.3% 감소한 6조 5,500억엔, 전년동월대비로는 8.0% 증가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4.3%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1.8% 증가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

부품, 원동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철강 간 순위 바꿈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증가

- 철강이 전월비 -12.7%로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데 이어 원동기,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수출 감소폭이 큼

〈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엔, %) 〉

순위	품목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136	10.5	8.5	9,791	7.2	-3.4	38,048	9.7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307	12.4	11.5	3,298	11.5	-0.3	12,761	14.3
2	철강	3,692	0.7	16.3	3,222	5.3	-12.7	13,453	4.9
4	자동차부품	3,091	6.5	11.9	3,163	2.0	2.3	11,706	3.2
5	원동기	2,578	12.5	19.4	2,386	12.7	-7.4	9,124	8.2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수출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
 - EU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9.3%로 가장 큰데 이어, 대만, ASEAN,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수출 감소폭이 큼
 - 對 한국 수출은 5.4% 감소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엔, %)〉

순위	국가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3,778	21.3	13.3	13,629	21.4	-1.1	51,491	18.5
2	중국	12,012	3.9	35.1	11,213	2.4	-6.7	42,533	1.6
3	ASEAN	10,737	11.6	9.7	9,977	7.5	-7.1	40,184	13.8
4	EU	7,049	9.1	13.5	6,393	0.8	-9.3	26,216	4.8
5	한국	5,082	4.3	14.6	4,806	7.1	-5.4	18,991	4.7
6	대만	3,976	6.1	23.6	3,676	1.8	-7.5	14,529	6.0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4월 수입도 감소로 반전

- '15.4월 수입은 6조6,050억엔으로 전월비 1.5% 감소로 반전, 전년동월비로도 4.2% 감소
 - 수입 물량은 전월비 0.7% 증가, 전년동월비로도 0.1% 증가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통신기가 제외되고 의약품이 5위 품목에 포함
 - 수입증가품목 중 의류·동부속품의 증가폭이 전월비 20.3%로 가장 크고, 신규 5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한 의약품의 수입은 전월비 7.7% 증가
 -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유가에 연동된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이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비 32.5%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엔, %)〉

순위	품목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7,309	-50.7	28.7	7,309	-34.6	0.0	28,689	-45.5
2	액화천연가스	6,209	-12.3	-2.0	4,191	-35.0	-32.5	28,774	4.3
3	의류·동부속품	2,308	-13.5	-24.3	2,776	3.9	20.3	13,833	33.6
4	반도체등 전자부품	2,672	0.6	9.8	2,446	6.1	-8.5	10,189	5.3
5	의약품	2,248	19.2	22.0	2,422	28.6	7.7	8,452	15.9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엔, %) >

순위	국가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3,754	-19.6	-17.0	15,972	2.5	16.1	64,087	0.6
2	ASEAN	10,899	-3.1	9.3	9,676	-0.8	-11.2	42,077	-0.1
3	미국	7,747	23.9	32.6	7,141	23.9	-7.8	27,201	11.5
4	EU	7,088	-5.3	13.7	6,745	1.2	-4.8	26,852	-2.8
5	호주	3,701	-14.8	1.6	3,765	-11.8	1.7	15,785	-7.8
8	한국	2,780	-8.3	7.5	2,885	5.3	3.8	11,264	-5.8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중국과 한국, 호주 등의 수입만 증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16.1%로 가장 크고 이어 한국, 호주 순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3.8% 증가
 - 반면, 미국과 ASEAN, EU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는데, 이중 ASEAN으로부터의 수입감소폭이 11.2%로 가장 크고, 이어 미국, EU 순

적 개선, 미국의 주가상승 등을 배경으로 전월보다 3.0% 상승한 19,768엔
- 5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20,000엔대를 돌파, 5월22일 기준 20,264엔

□ (금 리)

- '15.4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전월비 13.2% 하락한 0.328%
 - 5월 들어서는 해외장기금리 상승과 15년만의 주가 최고치 기록의 여파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매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0.46%대까지 상승, 5월 22일 기준으로는 0.405%

3. 엔저지속과 고주가 행진

□ (주 가)

- '15.4월 평균 주가는 기업들의 경영실



자료 : 일본경제신문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4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



자료 : 일본은행

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5.2%



자료 : 재무성

□ (환율)

- '15.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0.7% 하락한 119.6엔(엔고) - 5월 들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으로 119~121엔대에서 추이, 5월 22일 기준 121.04엔
-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

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5.4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11원으로 전월의 924원에 비하여 1.4%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감소로 반전

- '15년 3월 해외직접투자자액은 0.9조엔으로 전월비 33.2% 감소

□ (동향) 북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감소로 반전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	2014	2014			201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금 액	131,946	125,929	15,159	14,552	13,570	11,901	13,833	9,244	
증가율	전기비	34.9	-4.6	119.5	-4.0	-6.7	-12.3	16.2	-33.2
	전년동기비	34.9	-4.6	73.2	192.3	-22.2	-5.6	113.3	28.2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對 북미, 對 아시아 투자는 감소, 對 유럽 투자는 증가

- 북미, 아시아,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
- 對미국 투자는 57.0% 감소, 아시아 지

역에 대한 투자도 27.2% 감소

- 다만, 한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각각 85.1% 및 6.2% 증가
- 對 중남미 투자가 크게 증가한 외에, 유럽과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

〈 2014년 일본의 주요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

	2014년		2015.2월			2015.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3,833	16.2	113.3	9,244	16.2	-33.2
아시아	37,617	-4.3	3,339	8.7	24.5	2,432	-27.2	-19.5
중 국	7,150	-19.3	908	16.6	79.8	964	6.2	122.1
한 국	3,328	3.7	154	-27.4	-64.9	285	85.1	-31.9
북 미	46,264	1.2	8,867	89.8	280.6	3,857	-56.5	149.1
미 국	44,365	3.3	8,849	103.0	367.5	3,809	-57.0	170.1
중남미	7,710	-22.1	18	-83.1	-90.7	1,254	5,866.7	-
유 럽	26,310	-16.7	754	-62.4	167.4	1,160	53.8	-42.0
대양주	5,963	1.2	270	-70.9	-22.4	278	2.9	-74.0
중동	527	-	449	162.6	3,107.1	70	-84.4	438.0
아프리카	1,539	205.4	137	6,750.0	124.6	192	40.1	-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 징)

- 2015년 들어서도 M&A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엔저 속에서 자산지소형 해외직접투자와 생산거점형 해외직접투자 모두 일본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 제조업의 과제와 대응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제조 산업분과회는 회의(제3회)자료에서 「일본 제조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책대응 과제」를 제시
- 최근 일본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환경과 기업행동 변화로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국내시장의 축소, ▷해외시장의 확대, ▷기업의 글로벌 최적 생산,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구조 개혁,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등
- 산업구조심의회는 이에 대응하고 일본 경제재생 돌파구는 제조업의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①국내 모노즈크리 기반 정비, ②수익력 향상, ③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④인재 육성 등을 제시

1) 국내 모노즈크리 기반 정비

□ 5중고 해소를 위한 대응

- ① 법인세 인하
 - 2015년도 세제개정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34.62%에서 32.11%로, 2016년에는 31.33%로 인하하기로 결정
 - 2016년도에는 과세기준 확대 등에 의한 재원확보와 함께 세율인하폭을 확대하고 이후 세제개정에서는 법인세율 20%대까지 인하를 목표로 개혁
- ② FTA 추진
 - 2018년까지 무역의 FTA커버율 70%

를 목표

* 현재 일본의 FTA커버율은 22.7%로

13개국·1개 지역간 FTA 발효

- 2015년 1월 15일 일본·호주 FTA발표, 2월10일에는 일본·몽골 FTA 서명
- TPP, 일본·EU FTA, RCEP, 한중일 FTA 교섭 추진중

③ 에너지비용 상승 대응

- 동일본대지진 이후 에너지가격의 급등등을 배경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단가가 약 30% 상승한데 이어, 최근에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음
- 긴급경제대책으로 최신 에너지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절약 진단 등을 포함한 에너지대책을 강구

④ 환경규제에 대응

-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저탄소사회 실현계획을 책정하기로 함
- 이미 5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산업·에너지부분의 CO2배출량 기준의 73%를 커버하고 있음
- 계획 미책정 업종에 대해서는 조기책정을 촉진하는 한편, 새로운 CO2배출 목표의 대전제가 되는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검토

□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임금인상 · 거래관계 적정화

- 경제의 선순환이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흐름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중소기업에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임금인상과 함께 거래기업의 구입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한 가격전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

□ 일손 부족에 대응

- 구조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고령의 전문인력 퇴직을 앞두고 기술 승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나아가 자동차분야의 기간공 등 일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손부족 현상 외에도 물류, 건설, 가공업 등 주변산업에서 일손부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존

2) 수익력 향상

□ 사업재편 및 협력관계 구축

- 사업재편 촉진
 -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 50조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수급동향 또는 각 사업분야가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및 기타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 글로벌 벤치마킹 검토
 - 기업단위, 산업단위가 아닌 밸류체인 등을 고려한 사업분야별 검토, 글로벌기업의 홈마켓(중국시장 등)을 고

려한 검토 등

□ 신시장 창출

- 예상되는 시장
 - 차세대자동차, 항공기(MRJ 등), 우주, 로봇, 신소재(특수강, 기능화학품, 탄소섬유, 셀룰로즈나노파이버 등), 재생의료, 바이오 의약품 등
-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한 기업실증특례제도(기업단위의 규제개혁)과,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활용
 - * 그레이존 해소제이란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이 기존 제도에 없거나 규제가 적용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 주무부처가 1개월 이내에 명확한 해석을 해주는 제도
- 연구개발 지원·오픈 이노베이션
 - 연구개발 외에 지적재산·표준화전략, 산학연대, 인재·육성 등의 이노베이션환경 정비, 글로벌화 전략, 나아가 시장화전략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산업정책으로 전개

□ 글로벌 수익 획득

- 글로벌 수익력 향상을 위한 대응
 - 외국에 불공정무역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글로벌수익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규제도입이나 룰 등의 제도

수출을 검토

- 글로벌 니치톱 기업 육성(GNT, 중견기업, 성장전략)
 - 경제산업성이 2014년부터 글로벌 니치톱(GNT : Global Niche Top)기업 100사 선정을 개시하고, 장래 GNT기업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재확보·육성, 제품 개발·생산, 활약무대의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차원에서 정책 패키지를 추진
 - 각 부처가 연대하여 지방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적극 도전하도록 지원
- 인프라 수출지원
 - 톱 세일즈에 의한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지원
 - * 2013년 이후 총리·각료에 의한 강력한 톱 세일즈 : 실시건수 90건, 수주 실적 약 9.9조엔(2013년)
- 아시아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 성장성이 큰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섹터별로 경쟁국기업과 비교분석(아시아산업구조 분석)

3)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 IoT 및 인더스트리 4.0에 대응
 -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진화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혁 등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특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생산시스템에 대한 대응이 절실

* 인더스트리 4.0은 모든 상품을 인터넷에 연결한 IoT의 제조업판으로서 공장뿐만 아니라 거래처, 에너지, 나아가 종업원의 근로방식도 포함하여 전체의 최적화를 추진

○ 로봇 혁명 실현

- 자동차, 가전, 휴대전화나 주거 부문에까지 로봇화, 제조현장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로봇을 활용, 로봇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실현

4) 인재 육성

○ 글로벌 인재육성

-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기술의 계승을 통한 모노즈쿠리의 기초체력 유지·강화, 중견·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능케 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과제

○ OB인재 등의 활용

-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리드타임 단축이나 재고감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노즈쿠리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OB 등을 자사출신 업종 이외의 기업에도 가르치도록 재교육하고, 지역의 중소제조업·서비스업에 파견하여 개선활동을 지도토록 할 필요가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축소

□ (총 합)

- '15.4월 대일 무역적자는 1,888백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354백만달러 축소
- 큰 폭의 대일수출 증가와 대일수입감

- 소가 대일무역적자 축소에 기여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6%에서 5.1%로 높아진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과 비슷한 11.3%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7.9%로 전월의 7.6%보다 높아짐

〈 2015년 4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141	-23.1	7.2	2,379	-12.4	11.1	8,763	-19.7
대일 수입	4,383	-7.6	14.2	4,268	-12.7	-2.6	16,326	-9.8
무역 수지	-2,242	400	280	-1,888	-283	-354	-7,563	378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수출)

- '15.4월 대일수출은 전월비로 11.1%의 큰 폭으로 증가

- 동 기간 중 총수출은 8.1%나 감소했고, 일본의 수입증가율도 1.5%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대일수출 드라이브가 작용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3월	-23.1	7.2	-4.3	13.2	-14.5	4.7
2015. 4월	-12.4	11.1	-8.0	-8.1	-4.2	1.5
2015.1-4월	-19.7	-	-4.3	-	-8.2	-

- '15.4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순위는 전월에 4위였던 산업용 전자제품이 대일수출 순위 1위로 부상한 것이 특징
- 전월에 대일수출 순위 1위였던 철강제품은 3위로 밀려남

- 대일수출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전자제품과 수송기계, 철강제품, 정밀화학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
-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증가폭이 64.3%

로 가장 크고, 이어 광물성연료가 50%, 석유화학제품과 금속광물도 20%대의 큰 증가폭을 보임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감소폭이 -14.3%로 가장 큼

〈 2015년 4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141	-23.1	7.2	2,379	-12.4	11.1	8,763	-19.7
1	산업용전자제품	199	9.2	2.1	327	15.3	64.3	954	3.8
2	광물성연료	204	-66.7	-26.9	306	-33.3	50.0	1,165	-50.1
3	철강제품	265	-29.4	7.2	251	-26.3	-5.3	1,019	-28.5
4	전자부품	217	-0.6	17.3	186	-10.7	-14.3	771	-7.4
5	석유화학제품	102	-14.4	2.0	128	-10.4	25.5	443	-10.0
6	정밀화학제품	123	-6.9	25.5	121	-3.0	-1.6	455	-8.5
7	수송기계	109	-13.9	10.1	99	-3.6	-9.2	405	-6.9
8	금속광물	82	16.6	13.9	99	-15.2	20.7	338	-1.8
9	농산물	84	-8.0	15.1	95	4.2	13.1	337	-7.4
10	기계요소공구·금형	84	-10.0	15.1	85	-7.4	1.2	317	-1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수입)

○ '15.4월 대일수입은 전월비 2.6% 감소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3월	-7.6	14.2	-15.3	14.1
2015. 4월	-12.7	-2.6	-17.8	-1.9
2015.1-4월	-8.8	-	-16.1	-

○ '15.4월 대일수입 10대 품목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철강제품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감소
-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 정밀기계의 감소폭이 -27.0%로 가장 크고, 이어 산

업기계,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플라스틱 순

- 대일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의 증가폭이 6.5% 가장 크고, 이어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철강제품 순

〈 2015년 4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4,383	-7.6	14.2	4,268	-12.7	-2.6	16,326	-9.8
1	철강제품	544	-30.4	2.8	560	-27.3	2.9	2,160	-24.3
2	전자부품	517	3.4	3.2	541	4.8	4.6	2,066	4.0
3	석유화학제품	454	-0.7	22.7	476	-4.7	4.8	1,701	-14.0
4	정밀화학제품	381	-2.9	19.4	365	-11.4	-4.2	1,355	-9.6
5	기초산업기계	276	-7.4	25.5	269	-16.4	-2.5	1,028	-15.3
6	산업용전자제품	247	-17.4	22.3	263	-3.9	6.5	902	-10.5
7	정밀기계	341	35.2	25.4	249	1.1	-27.0	1,139	25.7
8	플라스틱제품	210	-17.0	7.7	209	-19.5	-0.5	812	-15.6
9	수송기계	214	-6.2	-8.2	200	-15.4	-6.5	831	2.2
10	산업기계	212	5.3	35.9	197	-12.0	-7.1	696	-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동향) '15.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
 - '15.1분기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89

백만달러로 전기비 66%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17.5% 감소

-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원인과 관련하여, 엔저 외에 2분기 연속 큰 폭의 증가에 대한 반작용 영향도 있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2분기		2014.3분기		2014.4분기		2015.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2,690	352	2,488	80	403	72	489	103	850	85	289
	(-17.7)	(-40.8)	(21.3)	(-7.5)	(-19.2)	(-46.0)	(-10.0)	(21.3)	(45.1)	(73.8)	(-17.5)	(-66.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14,548	2,463	19,003	583	5,272	563	4,484	746	4,185	558	3,555
	(-9.1)	(-10.7)	(-5.6)	(30.6)	(2.1)	(4.1)	(-3.4)	(-14.9)	(32.5)	(-6.7)	(-25.2)	(-15.1)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사례)

- 베어링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일본의 NSK와 TKG사가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2,600만달러를 투자, 자

동차용 니들베어링과 자동차용 압축밸브공장을 각각 설립 예정(2015.5.21. 헤럴드경제)

- 일본 카루비사가 국내 원주공업단지에

- 스넥 과자공장을 신설(2015.4.8. 닛케이)
- 투자액은 40억엔으로 해태제과와 50대 50으로 합작회사 해태카루비를 원주에 설립
 - 2016년 가동 예정으로 기존공장을 합친 생산능력은 연간 100억엔으로 배증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태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4월~2015.5월)

□ 국내 기관

- 『[일본경제연구회] 일본기업의 과제와 대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5월22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9&no=43449>
-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 한국은행, 2015년 5월22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670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제조업의 국내회귀 실태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5년 5월18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50836&recom=1833&ord=0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5월)』 한국은행, 2015년 5월8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6318&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중국·일본 전자기업, 실적 개선되며 투자여력 확대됐다』 LG경제연구원, 2015년 5월5일
<http://www.lgeri.com/management/finance/article.asp?grouping=01020400&seq=151>
- 『일본은행, 성장률 및 물가 전망 소폭 하향조정』 한국은행, 2015년 5월4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617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4&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20년 장기불황 극복해 온 일본 중소기업 무엇이 달랐나』 LG경제연구원, 2015년 4월22일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680>

□ 일본 기관

-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결과 개요(2013년도 실적)』 경제산업성, 2015년 5월23일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245280/>
- 『일본 모노즈쿠리산업의 과제와 대응 방향성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5년 5월22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250.pdf
- 『주요국의 대중 인식·정책 분석』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5년 5월21일
http://www2.jiia.or.jp/pdf/resarch/H26_Views_and_Policies_vis-a-vis_China/H26_Views_and_Policies_vis-a-vis_China.php
- 『2014년도 일본의 국제경쟁력 조사결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5년 5월20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5/049.html>
- 『일본의 수익력 창출연구회(안)』 경제산업성, 2015년 5월20일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kaseguchikara/pdf/011_03_01.pdf
- 『국내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대외직접투자』 미즈비시종합연구소, 2015년 5월14일
http://www.mri.co.jp/opinion/column/trend/trend_20150512.html
- 『일본의 對 아태 외교정책과 통상정책 방향 연구회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2015년 5월14일
http://www.apir.or.jp/ja/research/files/2015/05/2014_research_report_Oyane.pdf
- 『일본의 자본재 수출에 관한 고찰』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5월13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5e044.html>
-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향상; 한일비교의 관점에서』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5월9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5050002.html>
- 『일본의 인프라 수출과 삼각개발협력』 토마쯔, 2015년 5월1일
<http://www2.deloitte.com/jp/ja/pages/audit/articles/pub/ppp-20150428.html>
- 『수입중간재의 투입과 기업퍼포먼스』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4월29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5j015.pdf>

2. 주요 경제 일정

〈5월〉

일자	주요내용
1	· 핸드폰 SIM록 해제 의무화
7	· 한일 숲거래시장 오픈(도쿄상품거래소) · G20 농수산장관 회의(~8일까지, 이스탄불)
11	· 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 회견
12	· 고바야시 경제동우회대표 회견
13	· 원자력규제위원회
14	· 샤프 중기계획 설명회(3월기 결산) ·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대표 회견
15	· TPP 수석교섭관 회의(~25일까지, 괌)
17	· 하시모토 오사카시장 정계은퇴 선언
18	· 한미 외교장관 회담(서울) · 한인도 정상회담 · WTO 총회(~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 러시아 차관급 경제대화(모스크바)
19	· JETRO 이사장 회견
20	· 원자력규제위원회 · '15.1분기 GDP 속보치 발표(내각부)
21	· 국제교류회의 '아시아의 미래'(~22일까지, 도쿄)
22	·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회견
23	· 한일 통상장관회의(필리핀) · 한일 재무장관 대화(도쿄)
25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 고바야시 경제동우회대표 회견
26	· 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 회견
27	·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회의(~29일까지, 독일)
29	· EU 정상회의(도쿄)
30	· 쇼핑마트·이온 인도네시아 1호점 오픈(자카르타)

〈6월〉

일자	주요내용
1	· 한일 현인회의(서울)
3	· 한국·큐슈 경제포럼(후쿠오카)
5	· 아베총리 유럽 방문(9일까지)
6	·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우크라이나)
7	· G7 정상회담(독일)
18	· 제24회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도쿄)

한일경제협회 회장단선임, 신규가입 회원사

* 신임 부회장

■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국민은행
- URL : <https://www.kbfg.com>
- 설립년도 : 1963년
- 주요사업내용 : 금융업

** 신임 상임이사

■ 대성하이텍



최우각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연 테크노대로2길 10
- URL : <http://www.topdsht.com>
- 설립년도 : 1995년
- 주요사업내용 : 공업용 기계부품, 정밀공작기계부품 제조 등

** 신규 가입 회원사

■ 반석정밀공업(주)



이승학 대표이사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 317 반석빌딩
- URL : www.banseok.co.kr
- 설립년도 : 1999년
- 주요사업내용 : 기계

■ EMA Partners Korea



박상욱 대표이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 14층
- URL : www.ema-partners.com
- 설립년도 : 2003년
- 주요사업내용 : 글로벌 서치 펌

■ 대영회계법인



이주철 이사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 URL : www.dyaccounting.com
- 설립년도 : 2010년
- 주요사업내용 : 법무, 회계

■ (주)슈퍼라이트케이스



김옥경 대표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110-9
- URL : <http://www.superlightcase.com>
- 설립년도 : 2015년
- 주요사업내용 : 수출 및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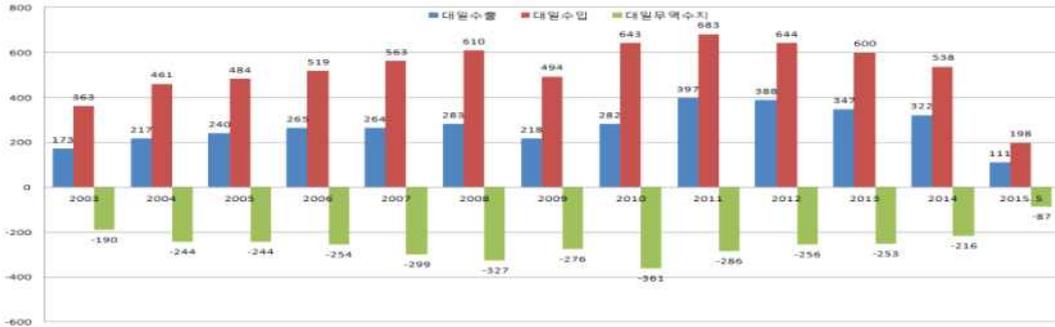
■ 엔에스사인기획(주)



나애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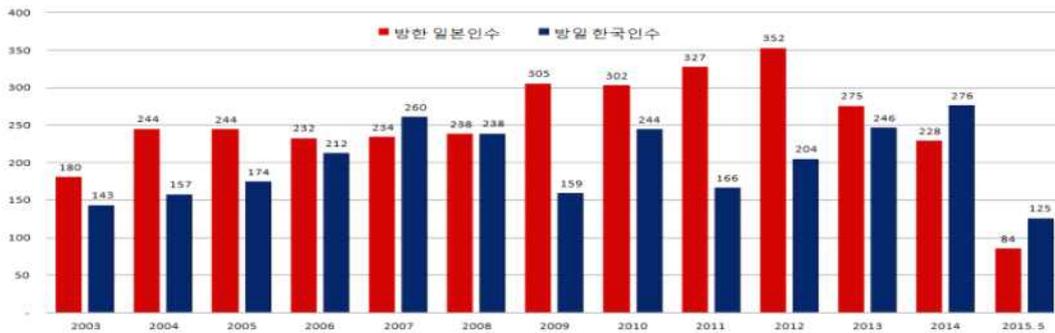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73
- URL : www.nssign.co.kr
- 설립년도 : 2012년
- 주요사업내용 : 디자인, 차선등 노면안내판

한일 교역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03~15.05)/(단위 : 억불)



구 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6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5,479	5,196	10,675	388	644	1,032	7.1%	12.4%	-256
2013	5,596	5,156	10,752	347	600	947	6.2%	11.6%	-253
2014	5,727	5,255	10,982	322	538	860	5.6%	10.2%	-216
2015.05	2,221	1,856	4,077	111	198	309	5.0%	10.7%	-87

한일 인적교류 현황 : 對일본 연도별 출입국 실적(03~15.05)/(단위 : 만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5
방한 일본인수	180.3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351.8	274.7	228.0	84.4
방일 한국인수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204.4	245.6	275.5	125.2
계	323.0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556.2	520.3	503.5	209.6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일본정부관광국(JNTO)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금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년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미만	10만원	20만원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년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한·큐슈, 한·호쿠리쿠, 환황해경제교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주일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 (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 문의처

(우)135-8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B/D 4층
김정호 부장 (TEL: 02-3014-9886 E-mail : jhkim@kje.or.kr FAX : 02-3014-9899)

